

전쟁 이후의 감정 교육

— 1950년대 『새벗』의 고아 서사에 투영된 국민국가 이념

조 윤 정*

요약

이 논문은 1950년대 『새벗』에 수록된 문학작품 속 고아의 양상을 분석하고, 잡지 광고로 유통된 건강 담론과 잡지사에서 개최한 어린이 행사의 문제를 전후 고아의 현실과 관련하여 고찰하는 데 목적을 둔다. 어린이 잡지 『새벗』에 수록된 서양 문학 중에는 고아 관련 작품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 작품들은 번역·번안 과정에서 권선징악과 현모양처 담론의 영향하에 축약되고 단순화된다. 그럼에도 이 작품들은 조력자의 가치를 일깨우고, 어른의 관점에서 형성된 서열화의 위험성을 드러내며, 고아에 대한 연민의 중요성을 부각한다. 그에 반해 한국의 아동문학은 군인과 교사라는 구원자의 등장, 의사(疑似) 가족의 형성, 어린이의 연대라는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전후 한국의 작가들은 인간 본래의 취약성을 부인하며 어린이가 자신을 미숙한 존재로 치부하게 하거나 역으로 지배의 판타지에 머물게 했다.

『새벗』의 내용상 특징은 전쟁으로 인한 삶의 기반 상실, 국가주의와 반공의식의 영향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잡지에 수록된 고아 서사는 구원받을 자격을 심문하고 구원자의 관점에서 부각된 시혜성과 만족감을 남긴다. 구원자와 구원당한 자의 위계는 『새벗』의 광고, 잡지사 주최의 행사와도 관련된다. 광고의 건강한 어린이 담론은 상대적으로 보호받지 못한 고아들의 몸을 독자들이 비정상적이고 불량한 상태로 여기게 했다. 또한, 문화행사의 초대권 배부나 수상자의 사적 정보 공개는 사회적 서열화와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의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에 대한 몇몇 작가들의 비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1950년대 『새벗』이 어린이들에게 제공했던 희망의 서사는 전쟁의 상처를 봉합한 채 전후 국민국가 담론에 기대어 성인과 아동, 아동과 아동 사이의 권력관계를 내포한 정치적 텍스트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

* 국민대학교 교양대학 조교수

주제어: 『새벗』, 한국전쟁, 고아, 아동문학, 번역, 연민, 국가주의, 반공의식

목차

1. 1950년대 『새벗』의 출판 취지와 감정 교육의 성격
2. 고아의 구원, 세계문학의 번역과 위인 선택의 논리
3. 어린이 민주주의와 길항하는 부모라는 권력
4. 문화자본 『새벗』에 담긴 국민국가 담론과 어린이의 서열화
5. 결론

1. 1950년대 『새벗』의 출판 취지와 감정 교육의 성격

전쟁 상황에서 어린이는 항상 무고한 희생자이다. 어린이는 전쟁터에서 육체적·정신적으로 가장 취약한 처지에 놓이고, 전쟁으로 인해 중단된 교육은 아이들이 미래를 도모할 가능성을 앗아간다. 한국전쟁이 낳은 전쟁고아는 1957년 약 7만 명으로 추산되었으나, 국가기록원의 통계에 따르면 10만여 명에 이른다.¹⁾ 전쟁은 어린이들에게 부모와 교사의 부재, 집과 학교의 파괴, 교과서의 부족 등 여러 문제를 초래한다.

읽을거리가 부족했던 한국전쟁 중에 출판된 아동잡지 『새벗』(1952~2000), 『소년세계』(1952~1956), 『어린이 다이제스트』(1952~1954) 등의 매체는 전쟁이 어린이에게 미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문화적 노력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²⁾ 또한, 세 잡지에는 공통적으로 ‘우리의 맹세’³⁾가

1) 「방임상태의 전재고아」, 『조선일보』, 1957. 5. 5; 신상일, “6.25 전쟁”,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https://theme.archives.go.kr/next/koreaOfRecord/625.do>, 2022. 8. 20 접속.

2) 『소년세계』는 피난지 대구에서 이원수 주간으로 창간된 잡지로 고려서적주식회사에서 발행되었다. 사진 소설, 과학 모험 소설, 소녀 소설, 동화 등 문학작품 이외에도 만화, 음악, 과학, 좌담회 관련 글을 실어 종합잡지의 성격을 띠었으며 ‘소년 문장 독본’, ‘중학생을 위한 현대시 감상’, ‘학교 방문기’처럼 독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코너를 마련하기도 했다. 『어린이다이제스트』는 피난지 부산에서 강소천 주간으로 창간된 잡지로 다이제스트사에서 발행되었

실려 있다. 이는 당시 피난지에서 발간된 어린이 잡지에 미친 국가주의와 반공주의의 영향을 반영한다. 이 가운데 『새벗』은 1952년 1월 5일자로 피난 수도 부산에서 창간되어 2000년까지 명맥을 이어간 잡지이다.⁴⁾ 전쟁 직전까지 출판되었던 『소학생』(1947.8~1950.6), 『소년』(1948.8~1950.6), 『아동구락부』(1950.1.~1950.6) 등이 간행 중단된 상황에서 『새벗』은 가장 오랫동안 아동문학의 생산, 유통 창구로 기능했다. 전쟁기와 전후 남한 사회에서 아동에게 요청되었던 오락과 교양의 내용은 당시 남한 사회가 추구했던 어린이상을 보여준다.

한국전쟁은 일제강점기 이후 계속되었던 국가 형성을 둘러싼 정치세력 간 투쟁의 연장선으로서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⁵⁾ 전쟁이 기존의 질서와 제도를 파괴한 자리에서 국가는 새로운 질서를 세우기 위해 전제적인 권력을 발휘하고, 군대나 경찰은 민간인 통제기구로 변화한다. 이 때문에 국민됨의 구체적인 내용은 전쟁 과정에서부터 창출된다. 일본의 병참기

다. 당시 일반 대중에게 인기 있던 25개 국역의 한국판 리더스다이제스트를 모방하여 낸 잡지로, 외국 아동문학 소개에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 또한, 한국의 동요를 소개하는 '그리운 노래집', '어린이 독자 투고', '동시 감상' 등의 코너를 통해 어린이의 독서와 작문 교육에 힘썼다. 박영기, 「1950년대 한국전쟁 시기 아동잡지의 문학 교육적 양상과 의의: 『아동구락부』, 『소년세계』, 『어린이 다이제스트』를 중심으로」, 『청람어문교육』55, 청람어문교육학회, 2015, 361-377면.

3) '우리의 맹세'는 다음과 같다. 1. 우리는 대한민국의 아들딸 죽임으로써 나라를 지키자. 2. 우리는 강철같이 단결하여 공산 침략자를 쳐부수자. 3. 우리는 백두산 영봉에 태극기 날리고 남북통일을 완수하자.

4) 『새벗』은 1952년 1월 1일 피난지 부산에서 "어린이 잡지"를 표제로 내걸고 창간되지만 재정적 어려움으로 1968년과 1970년대 초반 휴간과 복간을 반복하였다. 『새벗』은 1971년 5월 강재훈이 인수하였다가 휴간되었고 1982년 1월 (주)성서원 김영진 회장이 인수하여 '어린이 종합 교양지'로 2000년 9월호 통권 500호를 기록함으로써 가장 오래 발간된 어린이 잡지로 남게 되었다. 이후 『새벗』은 2003년 4월호(통권 531호) 이후 휴간되었다가 2004년 연간집으로 복간되었지만, 어린이 잡지의 성격을 벗어나 새벗문학상을 받은 작가들의 동인지 형식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장수경, 「어린이 잡지 『새벗』의 성격과 의의」, 『아동청소년문학연구』 10,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12, 60면.

5) 김동춘, 『전쟁과 사회』, 돌베개, 2000, 53면.

지에서 미국의 반소·반중·반북 전쟁 기지로 변모한 남한에서 북한을 인종적 타자로 설정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남한 사회의 반공 정서 형성에 크게 기여한 것은 인종도 민족도 아닌 바로 기독교였다.

이북의 좌파 정권과 기독교계 사이의 갈등이 심해져 많은 기독교인이 월남했고, 미국의 영향하에서 이승만을 비롯한 개신교도가 남한 사회의 권력을 쥔 상황에서 기독교는 자연스럽게 반공전쟁의 이데올로기가 되었다. 또한,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의 전쟁 참여, 물자 원조, 구호 사업은 기독교적 반공주의가 남한 사회를 장악하는 데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이 같은 정치 사회적 분위기는 『새벗』의 출판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창간 초기부터 『새벗』의 편집진은 개혁적인 기독교 목사인 김춘배와 최석주, 그리고 월남 작가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⁶⁾ 잡지의 발간 목적은 편집주들이었던 최석주가 쓴 「창간호를 내놓으며」를 보면 알 수 있다.

일천만 어린이들을 생각하고 좋은 동무, 착한 친구, 참된 벗이 되어지려고 애를 쓰기 시작한 것은 벌써 **이년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여러 선생님들의 재미있고 유익한 글과 작고 큰 아름다운 그림들을 모아서 읽어보고 가다듬어 인쇄소에 보내어 활자를 줍고 제판을 해서 거의 책이 되어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뜻했겠습니까? **6·25 공산당의 우리 서울 침입**으로 해서 우리들의 소중한 애기고 곱게 곱게 만들어 내려던 여러분의 어린이의 잡지는 송두리째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찌 우리의 잡지뿐이겠습니까? 우리의 편집실도 우리의 굉장하던 회관도 우리들의 살던 집도 무너지고 불타버려 남쪽으로 남쪽으로 피난하기를 두번이나 하였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피난처에서 천막 속 흙바닥에서 고생하고 애쓰면서 공부하는 것을 보게 될 때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우리나라의 주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씩씩하고 올

6) 장수경, 앞의 책, 64면.

꽃게 자라나야겠습니다. 튼튼하고 담대하고 또 솔직하고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잡지 『새벗』은 이러한 의미에서 여러분의 참된 동무가 되려는 것입니다. 같이 웃고 같이 울고 같이 싸우고 같이 공부해서 같이 자라가고 싶은 것입니다. (강조는 인용자⁷⁾)



(그림 1) 『한성일보』(1950년 5월 2일)에 게재된 『새벗』 광고

위의 인용문을 보면, 우선 『새벗』이 1950년에 발간될 예정이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한성일보』 1950년 5월 2일 광고에는 잡지 『새벗』을 홍보하는 기사(그림 1)가 실려 있다. “가정과 학교에서 꼭 봐야 할 재미있고 유익한 아동잡지”라는 홍보 문구와 차례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 이 잡지는 과학, 역사, 지리, 만화, 소설, 동요, 동시 등을 아우르는 내용으로 기획되었다. 전쟁 전에 발간되었던 아동 잡지들의 전체적 구성과 비슷하나 역사 부분에서 “이스라엘의 기쁨”을 내세운 것으로 보아 “조선기독교서회” 내에 위치한 새벗사가 기독교적 지식을 독

자들에게 전달하려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광고에 내보인 차례의 구체성은 최석주가 창간사에서 당시 “거의 책이 되어 나오게 되었던 것”이라 했던 말이 과장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7) 최석주, 「창간호를 내놓으며」, 『새벗』 창간호, 새벗사, 1952. 1, 2면. 1950년대 『새벗』은 창간 첫해에만 권호수를 표시했기에 이하 각주에서는 권호수를 생략하는 것으로 통일했다. 『새벗』 창간 첫해의 자료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장본을 활용했음을 밝혀 둔다.

그러나 1950년에 기획했던 잡지의 내용은 1952년 1월에 발간된 『새벗』에 그대로 반영되지 못한다. 과학 분야의 ‘파브르’ 이야기는 다시 등장하지만 ‘원자탄이란 어떤 것인가’, ‘달갈과 병아리’처럼 과학 관련 내용이 추가된다. 전체 체제와 내용이 모두 바뀌고 작품 수는 훨씬 늘어나는데 그중 김소운이나 박은중의 동시가 실릴 뿐 아니라 김말봉, 황순원, 이종환의 작품이 ‘감격소설’, ‘순정소설’, ‘소년소설’ 등으로 발표된다. 또한, ‘카나다의 어린이들’, ‘우리 작품’, ‘음악가가 되려면’, ‘소년 수첩’, ‘우리는 이렇게 공부하고 있다(우리 학교의 자랑)’, ‘어머니와 같이 보는 폐지’ 등의 챕터가 추가된다. 피난지의 흠바닥에서 교과서도 없이 수업을 해야 했던 어린이들에게 더 많은 글과 그림을 제공하고, 다른 피난 지역 학생들의 사정을 전해 향학열을 자극하려는 편집자의 노력이 깃든 결과다.

창간사에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사항은 이 잡지의 반공주의적 성격이다. “6·25공산당의 우리 서울 침입으로 해서 우리들의 소중한 애끼고 곱게 공급해 만들어 내려던, 어린이의 잡지는 송두리째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이하의 내용과 관련된다. 최석주는 공산당이 『새벗』과 새벗사를 송두리째 없애버렸다고 말하면서 집과 고향 상실, 피난지에서의 환난을 환기한다. 이로써 어린이 독자에게 공산주의에 대한 적개심을 자극하고 잡지 『새벗』의 창간을 매우 기념비적인 것으로 만든다.

마지막으로, 앞선 창간사를 통해 잡지 『새벗』이 기획한 국가주의와 기독교적 감정 교육의 측면을 살필 수 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의 주인”이라는 구절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듯 『새벗』은 어린이를 국가의 주체로 호명한다. ‘튼튼하고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은, 국가를 이끌어갈 사람의 기본 요건과 결부된다. 『새벗』의 계몽 논리에서 늘 중심에 놓인 것은 건강, 사랑, 희생이다. “같이 웃고 같이 울고 같이 싸우고 같이 공부해서 같이 자라가고 싶”다는 『새벗』의 바람은 개인의 강렬하고 문제적인 감정들을 공적 차원으로 전환하려는 노력과 연결된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사람이 부당하게 불행을 겪고 있다는 인식에 의해 초래되는 고

통스런 감정인 연민(compassion⁸⁾)은 『새벗』 창간의 기본 동력이면서 잡지가 당대 독자에게 요청하는 감정으로서 중요하다. 연민은 타인의 고통을 나쁜 것으로 바라보고 그에 대한 염려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동정과 유사하지만, 고통받는 자가 놓인 상황에 대한 이해나 돕고자 하는 실천 동기가 동정보다 강하다.

전쟁으로 인한 고통과 그 고통의 부당성을 가장 극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바로 ‘고아’이다. ‘국민적 제도가 가시적이거나 비가시적이지만 항상 법과 관행들 안에 물질화된 배제의 규칙, 경제들의 정식화에 의거하고 있다면⁹⁾ 고아는 그 경계에서 밀려난 타자로서 존재한다. 국가 통치의 기본 단위는 가족이며 근대의 국가는 가족을 넘어 인구의 조건을 개선·관리하고 인간의 품행을 이끄는 방식으로 통치를 실현해왔다.¹⁰⁾ 전후 한국은 정상적 가정이라는 범주에서 벗어나 있는 고아를 소수자로 ‘규정’하고 ‘처리’했다.¹¹⁾ 또한, 고아가 가족의 부정으로서 존재했기에 고아의 개념화와 관리는 거꾸로 가족을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었다.¹²⁾ 어린이 잡지 『새벗』에 자주 등장하는 입양이나 유사 가족의 문제

8) 마사 누스바움, 조형준 역, 『감정의 격동 2: 연민』, 새물결, 2015, 554-598면. 마사 누스바움에 따르면, 동정(sympathy)과 연민은 다른 사람의 고통이 나쁜 것이라는 판단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다만, ‘연민’이 고통당하는 사람 쪽뿐만 아니라 이 감정을 가진 사람 쪽 모두에서 더 큰 정도의 고통을 수반하기에 동정에 비해 관심이나 이후의 행위와 더 긴밀한 연관성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연민은 ‘나와 고통받는 사람이 질적으로 다르다는 인식’에 기반하기에 그 사람의 처지에서 고통을 느끼면서도 ‘고통받는 사람에게 고통이 가진 의미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연민이 동정보다 타인의 곤경에 대해 더 ‘강렬한 감정’을 수반하며 고통받는 자를 돕고자 하는 마음을 동기화할 가능성이 높다.

9) 에티엔 발리바르, 진태원 역, 『우리, 유럽의 시민들?: 세계화와 민주주의의 재발명』, 후마니타스, 2010, 59면.

10) 미셸 푸코, 심성보·전혜리·조성은 역, 『안전, 영토, 인구: 몰레루드프랑스 강의 1977-78년』, 난장, 2011, 144-163면.

11) 김아람, 『1950년대 한국 사회의 혼혈인 인식과 해외 입양』, 박선주·오경환·홍양희 편, 『고아, 족보 없는 자: 근대, 국민국가, 개인』, 책과함께, 2015, 104-117면. 고아 관련 시설에 대한 사회적 문제 제기가 확대되고 정부의 불완전한 아동 구호 탓에 소년 범죄가 증가하자 이승만 정부는 혼혈인을 비롯한 고아를 최대한 많이 해외로 입양 보내고자 했다.

는 이 같은 전후 국가 통치 문제와 연결되어 있었다.

한국전쟁으로 인한 고아의 실패와 사회적 대책에 대한 연구들은, 당시 고아 구호가 대부분 고아원의 수용으로 나타났으나 재정적 의존과 관리자의 부패 등의 이유로 원아들이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고 부랑아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드러냈다.¹³⁾ 고아에 대한 동정적 시선과 달리 부랑아에 대한 부정적 시선은 부랑아의 사회적 배제로 이어졌다. 이 같은 전후 부랑아 구호 담론 속에서 창출된 문학작품에 대한 연구는 국가-문화 권력에 의한 규제-통제의 위력이 현실과 유리된 문학이나 영화의 인위적 결말로 이어졌음을 보여준다.¹⁴⁾ 부랑아가 국가의 구성원으로 고려되지 못한 채 ‘상상된 미래 속에서만 국민으로 인정’받거나 ‘부랑아 서사가 성장서사로 재탄생’한 경위에 대한 선행 연구는 『새벗』에 실린 아동문학 작품을 분석하는 데 유효한 관점을 제공한다. 이 같은 현상은 아동문학에도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새벗』은 ‘전쟁 중에 발행된 잡지’¹⁵⁾, ‘전란의 참극과 공포로 고갈된 어린이들의 정서를 순화시켰으나 기독교적 성격으로 어린이들에게 노골화된 교훈을 부여한 잡지’¹⁶⁾ 정도로 소개되어 오다가 근래에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된 자료이다. 특히, 장수경을 통해 소설과 동화 중심의 편집 체제와 신진 작가 배출 등 아동문학적 성과가 논의될 수 있었다. 이 잡지는 국가 이데올로기를 생산·홍보해야 했던 월남 작가들의 정치적 한계 속에서 서사적 균열의 지점을 조명받거나¹⁷⁾, 보호받지 못하는 어린이를 통

12) 「머리말: 불가능한 비교 ‘고아’라는 비유」, 위의 책, 12면.

13) 소현숙, 「전쟁고아들이 겪은 전후: 1950년대 전쟁고아 실태와 사회적 대책」, 『한국근현대사 연구』 84, 2018, 326-348면; 김영중, 「피란수도 부산의 고아원과 고아의 삶: 한국 사회복지의 제도적 시원에 관한 연구」, 『향도부산』 41, 2021, 80-102면.

14) 서승희, 「전후 한국의 부랑아 구호 담론과 문화적 표상의 변천」, 『한국근대문학연구』 40, 한국근대문학회, 2019, 48-63면.

15) 최덕교, 『한국잡지백년』3, 현암사, 2004, 506-509면.

16) 이재철, 『한국현대아동문학사』, 일지사, 1978, 483-488면.

17) 장수경, 「1950년대 구성되는 기억·아동·문학: 『새벗』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52,

해 인권의 문제를 호출하면서도 어린이의 노동 착취, 성매매 문제 등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분석되었다.¹⁸⁾ 전자는 ‘국가 이념의 계몽’을 실현의 수단으로 삼아야 했던 월남 작가들의 숙명이면서, 반공을 내세워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남한 정치 현실에 대한 비판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또한, 후자는 ‘순수한’ 어린이, ‘보호받아야 할’ 어린이를 위해 창출된 당시 아동문학의 정신에 비취될 때 사건 묘사의 수위를 조절한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렇다면, 아동과 함께 성장하겠다는 잡지 『새벗』 본래의 취지, 즉 나라의 주인 양성 그리고 연민이나 동정을 기저에 둔 감정 교육이라는 목적은 달성될 수 있었을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잡지사가 도모한 방식은 한국의 아동과 아동문학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자들이 『새벗』 소재 문학작품의 특징으로 입을 모아 언급했던 고아의 잦은 등장이라는 문제를 경유하여 이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¹⁹⁾ 우선, 1950년대 『새벗』 소재 소설과 동화 가운데 고아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작품을 목록화하여 어린이 잡지에 번역된 세계문학 속 고아의 특성을 살펴보고, 한국 문학작품 속 고아의 존재 양상과 어떤 차이를 지니는지 고찰할 것이다.²⁰⁾ 또한, 잡지 속 광고에 나타난 건강 담론, 새벗사에서 개최한 어린이 잔치 등의 행사가 지닌 자본의 위계와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 등의

현대문학이론학회, 2013, 349면.

18) 장수경, 「1950년대 아동문학의 프레임에 비친 어린이 인권: 1950년대 『새벗』을 중심으로」, 『아동청소년문학연구』 30, 2022, 235-236면.

19) 이재철은 『새벗』에 수록된 아동소설과 생활동화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전쟁의 상흔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작품이 많았다는 점을 꼽았으며, 따라서 고아와 고아원이 없으면 이야기가 되지 않을 만큼 고아가 자주 등장했다고 언급한다. 또한, 장수경은 『새벗』의 문학작품 속 고아들이 전후의 비참한 사회 현실을 강조하여 ‘슬픔을 간직한 국민’이라는 감성적 공동체의 이미지를 구축해 낸다고 언급했다. 이재철, 앞의 책, 487-488면; 장수경, 앞의 책, 2013, 336면.

20) 본고에서 1950년대로 연구 대상 시기를 한정하는 것은, 1960년에 이르면 기존에 편집자 역할을 도맡았던 강소천이 주관을 그만두고 잡지의 체제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특히, 중학교 입학시험 제도가 생기면서 1960년의 『새벗』에는 과학, 역사, 국어 관련 기사가 늘어날 뿐 아니라 입학시험 문제에 많은 지면이 할애된다.

문제성을 분석하려 한다. 이를 통해 『새벗』의 어린이 서사가 전후 국민국가 담론의 자장 안에서 성인과 아동, 아동과 아동 사이의 권력관계를 내포한 정치적 텍스트로 남을 수밖에 없었음을 드러낼 것이다.

2. 고아의 구원, 세계문학의 번역과 위인 선택의 논리

1920~1930년대에 서양 동화를 번역하고 번역 앤솔러지를 펴낸 인물은 대부분 열성적인 기독교 신자이거나 기독교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인물 또는 외국인 선교사이다. 이것은 한국의 아동문학 및 아동문화의 형성과 기독교의 긴밀한 연관성을 시사한다.²¹⁾ 가라타니 고진에 따르면 근대적인 아동 관념은 기독교의 낭만주의적 시선에 의해 발견되었으며, 아동 문학인들이 지향하는 ‘성숙’이나 ‘진정한 아이’는 ‘인간을 다시 만들어내는 하나의 교육장치’인 근대 국가 제도의 산물에 지나지 않는다.²²⁾ 대한기독교서회의 재정적 지원을 받으며 간행되었던 『새벗』은 세계 여러 나라의 동화와 소설을 어린이가 읽기 쉽게 번역·번안하여 소개했다. 그 작품들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 지향점은 무엇이었을까.

지금까지 학계의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새벗』에는 여러 나라의 동화가 실려 있다. 이 작품들은 1950년대 후반 학원사나 계몽사 등에서 간행한 ‘세계아동문학전집’과 ‘세계소년소녀문학전집’에 수록된다. 『새벗』 소개 세계문학 중에는 ‘고아’ 관련 작품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고아가 등장하는 서구의 소설 및 동화들은 한국전쟁을 계기로 처음 번역된 것은 아니다. 식민지의 역사적 상황 또한 가난하고 불쌍한 고아 서사를 수용하기에

21) 연희경, 「일제 강점기 번역·번안 동화 앤솔러지의 탄생과 번역의 상상력(2): 기독교 계열의 번역 동화 앤솔러지를 중심으로」, 『아동청소년문학연구』 11, 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12, 215면.

22) 가라타니 고진, 박유하 역, 『일본 근대문학의 기원』, 민음사, 1997, 165-176면.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가령, 「프란다아스의 개」나 「성냥팔이 소녀」 같은 작품은 1910년대와 1920년대에 번역된 바 있다. 다만, 어린이가 경험하는 비극을 바라보는 관점, 그것을 당대 현실과 관련지어 해석하는 번역자의 태도 면에서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이후의 세계문학 수용 양상은 다르다. 일제강점기에는 ‘무정한 세상’에 놓인 불쌍한 어린이의 처지와 그 어린이가 환기하는 슬픔과 뉘우침이 강조되었다면, 한국전쟁 이후에는 착한 어린이상과 조력(자)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표 11은 1950년대 『새벗』에 수록된 번역 소설 및 동화 가운데 고아 관련 작품을 목록화한 것이다.

| | 작품명 | 수록 시기 | 국가 | 지은이 | 번역·번안자 | 주요 내용 및 특징 |
|---|-------------------------|----------------|-----|-------------|--------|--|
| 1 | 빨강 구두 | 1952.8 | 덴마크 | 안데르센 | 이중환 | 동화 특집호에 수록된 외국 작품. 한 부인에게 입양된 소녀 ‘카렌’은 세례식날 목사님의 말을 따르지 않고 빨간 구두를 신다가 계속 춤을 추게 됨. ‘카렌’은 사형수의 목을 자르는 남자에게 부탁해 발목을 자른 후 회개하여 승천함 |
| 2 | 프란다아스의 개 ²³⁾ | 1953.2 | 영국 | 위다 | 이중환 | 번역자의 해설이 실림. 화가를 꿈꾸던 우유 배달 소년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방화범의 누명을 쓰고,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다 교회에서 죽음을 맞음 |
| 3 | 흰 보석 | 1955.12 | 스위스 | - | 한목동 | 페스탈로치의 유년기를 소설로 각색한 작품. 어머니의 반지를 팔아 고아원에 기부하는 과정에서 아들이 느낀 깨달음과 감격이 두드러짐 |
| 4 | 어린 공주 | 1957.1-1957.12 | 미국 | 프랜시스 호지슨 버넷 | 김문숙 | 번역자가 연재에 앞서 번역의 동기를 밝힘. 영국 여학교에 입학하여 특별대우를 받다가 아버지의 파산과 죽음 이후 교장에게 학대당하지만, 선량함과 당당함을 잃지 않는 소녀의 모습이 그려짐 |
| 5 | 부활 | 1957.5 | 러시아 | 톨스토이 | 김요섭 | 작가 소개-줄거리-작품평으로 구성됨. 종교에 구속되지 않고 신의 뜻을 실현하는 |

23) 이 작품은 1957년 7월호에 ‘세계 명작 동화 소개’란에도 다시 언급된다. 특이한 것은 이 작품

| | | | | | | |
|---|---------|---------|-----|--------|-----|--|
| | | | | | | 톨스토이의 사실적 표현력을 고평함. 일찍 부모를 잃은 톨스토이가 귀족 생활을 비판하며 농민 구제 운동을 했던 전기적 사실이 강조됨. 고아로 자란 '가츠투샤'가 '네프류우도프'를 만난 이후 경험하는 타락과 불신, 그녀가 '네프류우도프'에게 일깨운 고귀한 사랑과 깨끗한 마음이 부각됨 |
| 6 | 오리바트위스트 | 1957.7 | 영국 | 찰스 디킨즈 | - | 원작에 강조되었던 고아원과 교회의 부패상은 생략됨. 고아를 데려다 소매치기를 시키는 악당의 꼬임에 빠져 고아원을 나온 '올리버'는 우연히 아버지의 친구 '브라운로우 씨'를 만나지만 올리버를 도우려 했던 '넌씨'는 소매치기 악당에게 죽임을 당함. 이를 본 고아들은 악당에게 대항하고 악당 소굴은 순경에게 발각됨 |
| 7 | 레미제라블 | 1957.9 | 프랑스 | 빅토르 위고 | 김요섭 | 작가 소개-줄거리-작품 감상의 구성으로 이루어짐. 작품 감상에서 가난의 두려움과 하나님 구원의 평등성이 강조됨. 양친을 잃고 살아온 장발장의 거둬된 범죄와 뉘우침, 그 과정에서 목사의 용서가 미친 영향이 강하게 나타남 |
| 8 | 키다리 아저씨 | 1957.10 | 미국 | 진 웹스터 | - | 작가와 줄거리 소개로 구성됨. 고아원에서 자랐으며 글재주가 비상한 소녀 '지루우샤'가 독지가 '키다리 아저씨'를 만나 대학을 졸업하고 그 독지가와 사랑을 나누는 과정을 요약적으로 정리하되 작품 전개상 편지라는 장치의 중요성이 강조됨. |
| 9 | 물 아이 | 1958.9 | 영국 | 찰스 킹즐리 | 박홍근 | 원작 동화가 그림 동시로 개작됨. 주인아저씨의 학대와 굴뚝 청소 노동에 시달리던 고아 소년인 물의 여왕의 도움을 받아 물속에서 살다가 육지로 돌아온다는 내용의 환상문학. |

[표 1] 1950년대 잡지 『새벗』에 소개된 고아 관련 세계문학 목록
(연재소설이 아닌 경우 인용 면수만 표시함)

『새벗』은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이 되면 ‘동화 특집’을 마련했다. 세계의 동화를 축약 번안하여 수록하거나 찰스 디킨스나 톨스토이의 장편소설을 어린이가 읽기 쉽게 요약하는 방식을 취했다. 방학 특집이 아니더라도

을 “영국의 여류 작가 ‘우이다’의 소녀 소설”로 소개했다는 점이다. 「세계 명작 동화 소개, 『새벗』, 새벗사, 1957. 7, 91면.

‘세계 명작 안내’, ‘명작 감상’ 등의 형태로 서양의 문학작품을 소개했다. 이 작품 중에는 ‘고아’가 주인공인 사례가 많다.

『새벗』에 번역 동화가 처음 실린 것 역시 방학 특집 때이다. 필자가 확인한 그 첫 작품은 바로 안테르센의 「빨강 구두」이다. 이 작품은 어머니를 잃고 부유한 부인에게 입양된 소녀가 교회에 검정 구두가 아닌 빨간 구두를 신고 가면서 벌어지는 비극이다. 나중에 소녀는 발목을 절단당하기까지 한다. 이 작품은 목사의 말을 듣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한 소녀가 결국 불행을 초래했다는 내용으로 정리된다. 자신을 입양한 부인을 기만하고 욕심을 부린 소녀가 상이군인의 주술에 걸려 결국 자기 몸의 일부를 상실한다는 내용은 잔혹하면서도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이처럼 아동문학이 어린이를 공포에 떨게 만드는 것은 공포에 질린 아이를 다루는 것이 훨씬 수월하기 때문이다.²⁴⁾ 약속을 지키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이 작품의 교훈은 명확하다. 특히 입양 이후 아이의 태도가 자기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점은 전쟁 상황에서 고아·입양아의 삶에 요청되는 순종적인 태도를 부각한다. 어린이 잡지에 수록된 세계문학이 남긴 공포는 전쟁기 고아를 말 잘 듣는 아이로 단련시켰다.

「프란디아스의 개」는 우유 배달을 하는 할아버지와 함께 살던 소년 ‘네르로’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화가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다 배고픔과 추위 속에서 개와 함께 죽은 채 발견되는 이야기이다. 이 작품은 예배당에 걸린 ‘루우벤스’의 그림을 보고 화가의 꿈을 갖게 된 소년이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담았으며, 소년이 ‘개’나 ‘아로야’와 나누는 우정 역시 소년의 이야기를 풍요롭게 만든다. 소년은 자신이 할아버지에게 동물까지도 사랑하는 ‘애정’을 물려받았다고 생각하며, 화가를 향한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 그러나 소년의 그림은 결국 전람

24) 조셉 조네이도, 구은혜 역, 『만들어진 아동: 문화 이데올로기 아동 이야기』, 마고북스, 2011, 150면.

회에서 낙선을 하여 그의 천재성은 빛을 보지 못한다. 이 작품을 번안한 이종환은 소년이 예배당 내 루우벤스의 그림 앞에서 죽음을 맞고 천국에 가는 것으로 작품을 마무리한다.

「빨강 구두」나 「프란시아스의 개」가 보이는 비극적 결말은 한국 아동 문학에서 선호하는 해피엔딩의 경향에 비취볼 때 생소하다. 굶주림과 추위에 지쳐 죽는 약자의 비참함을 담은 「프란시아스의 개」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사회문화적 상황에 따라 행복한 결말에 대한 판단 기준은 달라질 수 있다.²⁵⁾ 두 작품에서 주인공은 모두 천사의 도움으로 천국에 이른다. 이는 기독교적 관점에서 볼 때, 하늘의 영광을 얻어 현세의 고통을 보상받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잡지 『새벗』이 기본적으로 기독교의 자장 안에서 탄생했기에 두 작품의 비극적 결말이 별다른 왜곡 없이 반영될 수 있었던 것이다.

다만 특이한 점은, 「프란시아스의 개」를 번역한 이종환이 작품을 새드 엔딩으로 처리하면서 소년이 전람회에서 낙선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해설하고 있다는 것이다. “네르로의 그림은 늙은 나뭇꾼이 넘어진 나무에 걸터앉아 쉬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그것은 일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에 대한 동정이 넘치는 그림이었으나, 그림물감을 살 수 없었기 때문에 그저 검정과 흰, 두 색만 가지고 그린 것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크게 사람의 눈에 띄지 못하고 낙선이 되고 만 것이었습니다.”(29-30) 이종환은 ‘일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에 대한 동정’을 담은 그림의 작품성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그것이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한 것이 ‘소년의 가난’ 때문이라고 말해 꿈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 경제성을 강조한다.²⁶⁾

25) 마리아 니콜라예바는 “행복한 결말은 아동문학에 대한 전통적인 정의에서 가장 주요한 기준 중의 하나일 뿐 아니라 가장 보편적인 선입견 중 하나이다. 그러나 행복한 결말에 대한 생각은 문화적, 역사적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말했다. 마리아 니콜라예바, 조희숙 외 역, 『아동문학의 미학적 접근』, 교문사, 2009, 138면.

26) 이종환의 해석은 1912년 최남선이 신문관에서 「프란시아스의 개」를 ‘불쌍한 동무’라는 제목으로 번역 출판할 때의 의도와 다른 지점을 보여준다. 최남선은 작품의 주인공에게 ‘호월이와

그의 해석은 소년을 구원하지 못한 사회의 냉대를 돌아보게 한다. 특히, 소년과 우정을 나눴던 아로아와 달리 소년을 방화자로 오해했던 아로아의 아버지는 소년의 비극을 앞당기는 역할을 했다. 이 번역 작품은 독자에게 세 가지 의미를 이끈다. 첫 번째는 어린이의 꿈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력자(보호자)’의 가치를 일깨우고, 두 번째는 어른의 관점에서 형성된 ‘서열화’의 위험성을 드러내며, 세 번째는 고아에 대한 ‘연민’의 중요성을 부각한다. 이것은 모두 『새벗』에 수록된 한국 아동문학이 중시하는 특징이기도 하다.

「프란다아스의 개」가 끝나는 자리에 바로 이어 “UN군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기사가 덧붙여 있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한국에 사변이 일어난 지 세 번째 맞이하는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유엔군 아저씨들의 따뜻한 손이, 부모 잃고 집 잃은 고아들에게 많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어, 고아들의 기쁨이란 이루 말할 수 없다”²⁷⁾는 내용이 기사의 골자이다. 이 기사를 「프란다아스의 개」에 이어 읽으면 유엔군은 조력자를 넘어 구원자처럼 보인다. 또한, 동화에서 비극을 맞은 소년과 달리 한국의 전쟁고아들은 동화 속 소년에 비하면 행복한 처지에 놓인 것이라는 위안마저 얻게 된다.

실제 『새벗』 1953년 1월호에는 시인 박목월이 안데르센의 ‘성냥 파는 소녀’의 줄거리를 요약 제시하고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불쌍하고 외로운 친구들을 찾아가거나 그들을 위해 기도해 보라고 권한다. 그리고 이어서 ‘대구 봉덕동 에텐원’이라는 고아원에 찾아갔을 때, 전쟁 중에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자기보다 더 불쌍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던

바독이라는 이름을 붙여 준다. 그리고 작품의 말미에 해설을 달아 주인공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았던 ‘무정한 세상’, 두 주인공의 ‘사랑과 믿음’, 그들의 죽음 앞에서 동네 사람들이 느끼는 ‘늪우침과 부끄러운 생각’을 강조한다. 최남선의 이러한 태도는 세상에 대한 희망과 예술에 대한 열정을 펼치지 못하는 식민지 조선의 소년들이 자기 처지를 돌아보게 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Louis de la Ramee, 최남선 역, 『불쌍한 동무』, 신문관, 1923 [1912], 71-72면.

27) 「UN군의 크리스마스 선물」, 『새벗』, 새벗사, 1953. 2, 31면.

일을 전한다.²⁸⁾ 그곳에는 미군이 데려다 ‘벤’으로 키르다가 미군이 고국으로 돌아가며 고아원에 맡긴 ‘삼일’이도 있다. 박목월은 ‘삼일’이라는 소년이 “어려운 동무를 돌봐 주는 사람”이 될 뜻을 품은 것에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이 글에서 안테르센의 동화 ‘성냥 파는 소녀’는 한국의 독자에게 상대적인 위안을 주기 위해 동원된다.²⁹⁾ 피난지의 고아원에서 더 열악한 처지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며 꿈을 키우는 한국 고아의 사정은, 아버지의 학대 속에서 성냥팔이를 하다가 죽음을 맞는 외국 소녀의 비극에 비할 때 견딜 만한 것이 된다. 그러나 타자의 비극을 감상하고 얻은 카타르시스는 오래가지 않을뿐더러 자신이 처한 불행의 원인을 간과하고 슬픔과 분노를 억압한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에게 ‘소공녀’로 더 널리 알려진 「어린 공주」의 번역은 주목을 요한다. 이 작품을 번역했던 김문숙은 「붓을 들기 전에」에서 15년도 더 전에 ‘어린 공주’라는 책을 생일 선물로 받고 여러 번 읽은 이야기, 어른이 되어서 영어로 쓰인 원문을 읽었지만 읽을 때마다 “주인공의 착하고도 고운 맘씨에 눈물을 흘리곤” 했다는 이야기를 전한다.³⁰⁾ 그리고 번역자는 ‘이 세상의 모든 소녀들이 그와 같이 고운 맘씨를 갖고 있다면 세상은 더 아름답고 밝아질’ 것이라 말한다. 번역자의 이 같은 말은 그가 주인공 ‘썬일라’의 착한 심성을 한국의 소녀가 본받길 바라는 마음으로 번역을 시도한 것임을 알려준다. 실제 이 작품은 한국 소녀들에게 인기를 얻었는데, 1965년 경향신문사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화여대 학생들

28) 박목월, 「새 사랑의 학교」, 『새벗』, 새벗사, 1953. 1, 46-47면.

29) 이 같은 수용 맥락은 「성냥팔이 소녀」가 1923년 잡지 『어린이』 창간호에 수록되었을 때와 분명히 차이를 보인다. 당시 「성냥팔이 소녀」를 번역했던 방정환은 소녀가 성냥을 켤 때마다 경험하는 행복한 환상, 그 환상 속에서 할머니를 만났을 때 소녀가 느낀 기쁨을 강조했다. 그리고 어른들이 소녀가 ‘밝은 광채 중에 할머니와 함께 새해를 맞은 줄 알지 못한 채 소녀의 죽음을 가여워하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역으로 천상세계를 볼 줄 아는 어린이의 순수함을 강조한다. 小波, 「丁抹 안테스 氏 作 석냥파리 소녀」, 『어린이』 창간호, 개벽사, 1923, 3면.

30) 김문숙, 「붓을 들기 전에」, 『새벗』, 새벗사, 1957. 1, 98면.

이 어린 시절 가장 많이 읽은 책 1순위에 올랐다.³¹⁾ 이 작품은 1920년대에 이미 일본어 완역서로 조선에 유통되었으며, 1950년대에도 서울방송국 라디오 채널 ‘어린이 시간’에 ‘연속소설 소공녀’(1955)의 형태로 송출되었다. 그러므로 잡지에 수록된 이 동화의 번역 및 연재는, 이미 번역서나 방송을 통해 인기를 얻은 ‘소공녀’의 여세를 몰아 잡지 판매고를 올리기 위한 전략의 일환인 셈이다.

앞서 김문숙의 말에서도 짐작 가능하듯, 「어린 공주」의 썬이라라는 ‘고운 맘씨의 소녀’, 즉 ‘당대의 지배 이데올로기가 강조하던 ‘소녀다움’을 구현한 인물’³²⁾이었다. 무엇보다 1950년대에 ‘썬이라 이야기’가 방송을 타면서까지 반복적으로 소환되었던 것은 한국전쟁 이후 한국 어린이의 현실과 잘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가난, 교장의 학대와 친구들의 냉대 속에서도 주변을 살피고 불우한 어린이를 돌보는 썬이라의 모습은 전쟁으로 부모를 잃고, 가난과 굶주림을 견디며, 남의 집 식모나 구두닦이로 박대를 견뎌야 했던 남한 사회의 어린이들에게 모범이 되어 주었던 것이다.³³⁾ 특히, 썬이라라는 아버지의 친구와 만나 다시 부유함을 되찾은 후에도 거지 아이들의 빵값을 대신 내주기 위해 빵집을 찾는다. 이런 썬이라의 모습은 고아가 동정과 연민의 대상에 그치지 않고 남을 돕는 주체의 자리에 설 수 있다고 교육했던 전후 남한 사회의 소국

31) 「꿈을 키워주는 독서: 이화여대 학생들이 어렸을 때 읽은 책들」, 『경향신문』, 1965. 9. 4. 이 순위에서 어린이 잡지 『새벗』은 20위에 올라 그 인기를 증명했다.

32) 고지혜, 「1950-1970년대 『소년소녀세계문학전집』의 ‘소녀’와 정전화 과정」, 『한국어문교육』 34, 고려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2021, 253면. 고지혜는 “『소공녀』의 저본이 처음부터 아동 청소년 독자를 대상으로 출간된 단권 형태의 작품이라는 점, 비교적 단선적인 플롯과 권선징악적 결말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주인공 세라의 성격적 특성이 서사가 진행되는 내내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 등으로 인해 번역 및 수용 과정에서 용이한 지점에 위치한다.”라고 분석한 바 있다.

33) 이 작품이 연재될 당시 『새벗』의 독자란인 ‘새벗 구락부’에는 ‘착하고 고운 썬이라의 불행을 슬퍼하며 썬이라가 하루 바삐 행복해지길 바라는’ 독자들의 글이 실린다. 「새벗 구락부」, 『새벗』, 새벗사, 1957. 7, 120면.

민 양성 이데올로기와 공명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어린 공주’, 즉 ‘소공녀’는 1959년에서부터 1970년 대까지 간행된 주요 세계아동문학전집에 가장 많이 수록될 정도로 독자들의 선호를 받은 작품이다.³⁴⁾ 앞서 살핀 ‘빨강 구두’ 역시 세계아동문학전집의 ‘안데르센동화집’ 안에 ‘빨간 신’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차례 수록되었다. ‘플란다이스의 개’도 1959년 계몽사판 세계아동문학전집에 수록된 이후 70년대까지 간행된 세계아동문학전집에 거의 빠지지 않고 수록된다. 한국전쟁기에 창간된 『새벗』의 번역 작품 선택 경향은 이후 한국에서 유통된 세계아동문학전집의 근간을 이루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³⁵⁾ 이들 작품에서 “고아 인물이 대개 착하고 상냥하며 어떠한 고난에도 불평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인내하는 인물로 묘사되며 예쁘고 맑은 얼굴을 지니고 있다”³⁶⁾는 공통점을 지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는 아동을 현실의 때가 묻지 않은 순수한 존재로 보는 ‘동심천사주의’에 기반한다. 동심천사주의는 ‘현실의 피로와 중압감을 어린이의 순수성에 기대어 치유하고 구원 받으려는 어른의 낭만적 충동’³⁷⁾에서 비롯된 것이다. 남북 분단의 현실 속에서 어른들은 순수한 어린이를 발견하며 전쟁의 참상을 잊고 통일의 희망을 보았다.

그러나 「어린 공주」의 ‘썬일라’는 당대 사회가 요청했던 교과서적인 모습만으로 요약하기 어려운 인물이다. 그녀는 부자였을 때에도, 아버지의 파산 소식이 전해진 이후 학교의 하녀가 되었을 때에도 삶의 태도를 바꾸

34) 고지혜, 앞의 책, 246-248면.

35) 『새벗』에는 이 외에도 ‘툼소여의 모험’, ‘성냥팔이 소녀’, ‘파랑새’, ‘로빈슨 크루소’,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정글북’, ‘헨젤과 그레텔’ 등이 수록된다. 이들 작품은 한국에서 간행된 세계아동문학전집의 기반이 된 계몽사판 『세계소년소녀문학전집』(1959-1962년)에 수록된다. 이는 계몽사판 전집을 『새벗』 주간이었던 강소천이 책임 편집한 사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36) 고지혜, 「1960-70년대 세계아동문학전집의 고아 인물 연구」, 『아동청소년문학연구』 15, 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14, 262면.

37) 원종찬, 『한국 아동문학의 쟁점』, 창비, 2010, 14-15면.

지 않는다. 자신보다 낮은 지위의 ‘벧기’나 친구 ‘아미’나 ‘룻티’와도 동등하게 지낸다. 자신을 확대하는 교장 앞에서도 당당하다. 그녀는 자신이 현실을 바꾸지 못할 바에야 “공상”³⁸⁾으로 현실을 극복하기로 한다. 교장의 확대를 받으면서 그녀는 자신을 감옥 속 공주라 상상하며 ‘공주의 품위’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쉐일라에게 ‘상상’은 생존의 문제였다. 이 같은 쉐일라의 태도는 다음 장에서 살필 한국 아동문학에 등장하는 소녀들과 매우 다르다. 사회적 지위가 낮아지고 주변 사람에게 구박받는다고 스스로를 비판하거나 자살까지 시도하는 인물, 학교 교사를 비롯한 구원자(보호자)에게 의지하며 심한 애착 현상을 보이는 한국문학 속 여성 인물은 주어진 환경에 순종하며 살아온 존재들이다. 그러므로 현실 너머를 상상할 줄 알았던 쉐일라를 번역자가 맘씨 고운 소녀로만 읽었던 것은 전후 교육담론이 현모양처형의 여성상을 이상으로 삼았던 현실과 직결된다.

한국의 현실에 맞게 외국 문학작품을 단순화하거나 왜곡하는 현상은, 번역 과정에서 분량이 크게 줄어들 때 더 심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디킨즈의 「올리버 트위스트」가 짧은 단편소설로 번역, 소개되면서 이 작품은 권선징악에 기반을 둔 고아 구원 서사로 축소된다. 19세기 영국 런던의 뒷골목에서 올리버 트위스트라는 고아 소년이 겪는 고난을 통해 교회의 부패를 포함한 영국 사회의 부조리와 불평등을 비판했던 작가의식은 모두 소거되고 올리버를 구원하는 브라운로우 씨의 포용력, 고아 소녀 ‘넵씨’의 희생적 죽음, 그것을 본 소매치기 악당들의 개과천선, 악인의 소탕, 가족을 찾은 올리버의 행복 등이 부각될 뿐이다.

이 작품이 소개될 즈음 남한 정부는 외부 원조 중단으로 부랑아 보호 문제에서 난관에 봉착한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부랑아 수용소를 건립하기 위해 국내에서 원호기금을 모집하는 한편 부랑아 ‘일소(一掃)’에 힘쓰고 있었다.³⁹⁾ 그러한 상황에서 「올리버 트위스트」는 소매치기 같은 범죄

38) 바아벨, 김문숙 역, 「어린 공주」, 『새벗』, 새벗사, 1957.5, 67면.

39) 「부랑아를 선감도에 수용」, 『조선일보』, 1956. 10. 30; 「부랑아 원호 기금 모집」, 『조선일보』,

자 집단으로 변질될 부랑자에 대한 경계심을 일깨우고, 그들을 교화하거나 통제할 공권력의 중요성을 부각하는 텍스트로 읽힐 수 있었다. 무엇보다 올리버처럼 착한 고아를 가족으로 맞이하여 올리버에게 진짜 가족을 찾아주는 브라운로우 씨 같은 조력자의 등장은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에 익숙한 한국 사회에서 매우 설득력 있는 서사로 수용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디킨즈의 이 작품에서 사회 불평등 문제를 폭로하는 신랄한 묘사를 지워내고 소설을 고아 구원의 서사로 탈바꿈한 작업은 남한 사회의 부랑아 문제를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 고아나 조력자의 심성(내면) 문제로 바라보게 하려는 의도를 내포한다.

[표 1]에 제시한 작품 중 「흰 보석」은 페스탈로치의 유년기 일화를 ‘소설’로 각색한 것이다. 아동 계몽에서 빠질 수 없는 내용은 바로 ‘영웅’과 ‘위인’에 대한 이야기이다. 잡지 『새벗』에는 이순신이나 파브르와 같은 위인이 등장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고아로 성장한 위인, 고아를 위해 헌신한 위인이 강조되는 특징을 보인다. 남강 이승훈(1953.9), 페스탈로치(1955.12), 바흐(1957.3), 톨스토이(1957.5, 1958.10), 앙리 듀낭(1959.5)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이승훈과 톨스토이는 공통적으로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도 역경을 이겨냈으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헌신했다는 점이 강조된다. 또한 페스탈로치와 앙리 듀낭은 고아로 자라지는 않았으나 고아들을 위해 헌신한 부모의 영향을 받아 각각 ‘고아의 아버지’라 불리는 교육자, ‘인류애의 성자’라 불리는 국제 적십자 창설자로 성장했다는 점이 부각된다. 페스탈로치의 정신은 「거룩한 발자취를 남긴 분들」(1957.2)처럼 위인란에도 소개될 만큼 잡지 『새벗』의 근간을 이룬다. 『새벗』이 주목한 위인들의 중심에는 기독교 신앙과 박애의 정신이 놓여 있다. 이 위인들의 삶은 다음 장에서 살필 한국 문학작품에서 고아의 이상 실현, 고아의 구원자 표상과 연

1956. 11. 17; 「부랑아 원호에 협력하자」, 『조선일보』, 1956. 12. 2; 「부랑아 일소」, 『경향신문』, 1957. 2. 4; 「희망의 마을 말쑥」, 『경향신문』, 1957. 2. 12.

결된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3. 어린이 민주주의와 길항하는 부모라는 권력

세계 아동문학에 표상된 고아의 이미지는 『새벗』에 수록된 동화와 소설에 큰 영향을 미친다. 어린이가 감당해야 하는 가난과 외로움, 고난 극복 과정에서 품는 희망, 사랑과 희생정신을 강조한 기독교의 영향 등의 면에서 그러하다. 그러나 한국의 아동문학은 구원자의 등장과 어린이의 연대라는 측면에서 다른 결을 보인다. 이는 갑작스런 ‘전쟁’으로 가족을 비롯한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상실했다는 점, 반공의식이 국시로 작용했다는 점, 군인이나 교사가 고아를 구원한다는 점과 관련된다. 필자는 전후 한국의 아동문학이 지닌 특징을 분석하고자 『새벗』에 수록된 고아 관련 동화와 소설을 표로 정리했다.

| | 작품명 | 수록 시기 | 장르 구분 | 지은이 (출생지) | 내용 |
|---|------------------|---------------|-----------------|------------------|--|
| 1 | 어머니의 책 | 1952.1 | 감격소설 | 김말봉(경상 남도 밀양) | 아버지의 납북 이후, 피난길에 어머니와 동생마저 잃고 고아원에서 지내던 상구는 친구들과 도둑질한 물건을 팔아 엄마의 이름이 적힌 음악책을 구입함. 음악책에서 엄마의 음성을 듣고 도둑질을 그만둔 후 상구는 고아원 원장의 도움으로 죽은 줄만 알았던 엄마를 다시 만나게 됨. |
| 2 | 밤을 걸어가는 아이 | 1953.3 -미완 | 소년소녀 소설 | 박화목(황해 도 황주) | 미국에서 온 중군목사와 한국인 목사의 도움을 받는 일등, 전쟁미망인의 집에 입양된 혜순, 구두닦이 영길과 노마가 목사들의 도움으로 유학을 떠나거나 병원 치료를 받게 됨 |
| 3 | 열세 동무 | 1953.6 | 희곡(우리 들의 연극) | 이보라(경기 도 고양) | 서울신문사 신춘문에 현상모집 아동 작품 당선 발표회에서 일등 당선작 ‘열세 |

40) 이 작품은 1957년도 『새벗』에 실린 소설과 동화 중 독자들이 뽑은 가장 재미있는 작품으로

| | | | | | |
|----|-----------------------|---------------------|------------|--------------|--|
| | | | | | 동무(전쟁미망인에게 입양된 이종호 군의 작품)의 창작 경위를 담은 작품 |
| 4 | 잊을 수 없는 이름 | 1953.6 | 동화 | 손동인(경상남도 합천) | 고아 '숙이'를 보고, 감기로 죽은 동생 '넌이'가 생각나서 함께 살자고 부탁했으나 어머니에게 혼나는 이야기 |
| 5 | 아가야 새벽별을 주마 | 1953.11 | 동화 | 김요섭(함경북도 나남) | 서울에서 피난 내려오다 수원에서 부모를 잃은 웅이가 피난길에 손자 봉이를 잃은 할머니를 만나 서로 의지하는 이야기 |
| 6 | 해바라기 피는 마을 | 1955.7 -1956.8 | 소설 | 강소천(함경남도 고원) | 전쟁으로 아버지를 잃고, 시장 화재로 어머니마저 잃어 고생하던 정희가 편지를 주고받던 육군 소위의 어머니에게 입양됨. 정희는 학교에서 고아 관련 연극의 주인공으로 출연함 |
| 7 | 해와 달은 누구를 위해 | 1955.11 -1956.12 | 소설 | 김이석(평안남도 평양) | 미군 부대에서 하우스 보이로 일하게 된 태섭이 그곳에서 만난 정 선생에게 가르침을 받고 미군 부대 내 다른 고아들과 우정을 나누며 부모 상실(아버지 납북, 어머니 교통사고)의 슬픔을 극복하는 이야기 |
| 8 | 싼타클로스의 선물 | 1955.12 | 희곡(크리스마스극) | 주태익(평안남도 대동) | 친구들의 놀림 때문에 고아원에서 도망친 금녀와 용길의 사정을 알고, 고아 출신 서커스 단원이 연극을 꾸며 아이들을 고아원 원장에게 인도함. 원장을 하나님님이 주신 새아버지로 묘사함 |
| 9 | 물오리 | 1956.6 | 동화 | 황광은(평안북도 용천) | 서른 명의 고아들이 치료하고 정성스레 키운 물오리를, 고아들에게 캐러멜을 나눠주던 아저씨가 총으로 쏘아 죽인 이야기 |
| 10 | 사탕나라 꿈나라 | 1956.7 -1957.4 | 동화 | 이영희(일본 도쿄) | 태어난 직후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마저 6.25 때 납치당한 민수는 큰형네에서 지내던 중 창경원에 갔다가 그곳에서 만난 설탕나라 왕자와 모험을 떠나게 됨 |
| 11 | 양지쪽을 찾는 아이들 | 1956.12 | 희곡(크리스마스극) | 주태익(평안남도 대동) | 크리스마스 저녁, 집 앞에서 내뿔으려 했던 고아의 도움으로 잃어버렸던 아이들을 찾게 되는 이야기 |
| 12 | 짜리문 밖에서 | 1957.1 | 소년소설 | 유호(황해도 해주) | 동수의 친척 아저씨네에서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식모살이를 하는 고아 인순이를 동수의 아버지(교사)가 데려다 키우게 된 이야기 |
| 13 | 꽃들의 합창 ⁴⁰⁾ | 1957.4 -1958.3 | 소설 | 강소천(함경남도 고원) | 전쟁으로 가족을 잃고 백범보육원에서 함께 지내는 세 명의 소녀들이 각각 국 |

선정되었다. 그 뒤를 이은 작품이 프랜시스 호지슨 버넷의 「어린 공주」(김문숙 역)였다. 「12

| | | | | | |
|----|----------|---------|-----------------|--------------------|---|
| | | | | | 어 교사, 음악 교사, 화가 아저씨를 만나 작가, 성악가, 화가의 꿈을 키우며 외로움을 이겨냄. 그중 영애는 고아원에서 만난 소년 인걸의 도움으로 동생을 찾게 됨 |
| 14 | 오리알 | 1957.6 | 소설 | 계용목(평안북도 선천) | 학교에서 전제고아 위문금을 모집하자 만금은 김 초시네서 일을 함. 그러나 빚 때문에 돈을 받지 못하자 초시네 오리알을 훔쳐 위문금을 내고 선생님께 혼나게 됨 |
| 15 | 어머니의 사진첩 | 1958.1 | 동화 | 서석규(충청남도 금산) | 전쟁 폭격으로 부모를 잃은 구두닥이 소년이 고물상에서 발견한 어머니의 사진첩을 훔치다 도둑으로 몰리지만 한 아주머니의 도움을 받음. 그러나 아주머니의 아들에게 거지 취급을 받아 그 집을 뛰쳐나옴 |
| 16 | 멧새와 영길이 | 1958.6 | 동화 | 유경환(황해도 장연) | 고아원 친구 영길이가 멧새 알 대신 슈류탄을 주워 목숨을 잃은 후 '나'는 새 장수의 멧새에게 빵을 주며 영길을 그리워함. 멧새가 팔려가던 중 사고를 당하자 '나'는 죽어가는 새를 영길 곁에 묻어주기 위해 가슴에 품고 걸어감 |
| 17 | 유리창 | 1958.11 | 소년소설 | 김은조 ⁴¹⁾ | 직업소년학교에서 만난 정남과 길수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유리창 앞에서 공부하며 나폴레옹과 슈바이처처럼 위대한 사람이 되길 꿈꾸는 이야기 |
| 18 | 눈오는 밤 | 1958.12 | 희곡(크리스마스 연극 대본) | 주태익(평안남도 대동) | 고아인 신문장수 순남은 담배장수 군팔의 딱한 사정을 알고 빵을 사다줄 뿐 아니라 크리스마스 밤, 한 부인에게 입양될 기회를 군팔에게 넘겨 부인을 감동시킴 |
| 19 | 달님이 본 것 | 1959.2 | 동화 | 박우보(평안남도 평양) | 6.25 전쟁 중 이남으로 피난 간 아버지와 만나길 기도하는 열두 살의 영희를 달님이 평양을 지나다 보게 됨. 굶주림과 추위 속에서 할머니와 함께 통일을 염원하는 소녀를 달님의 시점에서 그리워 이북과 이남을 대조적으로 묘사하는 관점이 두드러짐 |
| 20 | 싸움 동무 | 1959.3 | 소년소설 | 손창섭(평안남도 평양) | 고아 덕기가 새로 이사 간 동네에서 문수와 그의 부하 창호와 병걸을 만나 갈등하고 화해하는 이야기 |
| 21 | 아름다운 편지 | 1959.5 | 소설 | 심재언(경상남도 함천) | 미국인 브라운과 편지를 주고받는 영국, 병든 어머니가 떠나 고아가 된 구두닥 |

월호 상타기: 누가 일등], 『세벗』, 세벗사, 1958. 2, 27면.

| | | | | | |
|----|--------------|--------------------|------|-------------|--|
| | | | | | 이 덕수의 우정과 이별을 담은 작품. 미국에 대한 환상, 브라운의 시혜성이 나타남 |
| 22 | 소리처럼 바위처럼 | 1959.7-195 9.12 | 소녀소설 | 황영애(서울) | 엄마가 돌아가신 후 시골 고모댁에서 지내게 된 은엽은 사촌오빠의 친구인 고아 소년과 어울리며 위안을 얻지만, 폐병으로 고생하던 동생 은영마저 잃게 됨. 은엽의 아빠는 새엄마가 될 사람과 함께 왔다가 고아 소년의 사정을 듣고 은엽과 소년을 서울로 데려감.(은엽이 화자이며 죽은 엄마를 향한 편지 형태로 구성됨) |

〔표 2〕 잡지 『새벗』에 수록된 고아 관련 문학작품 목록
(1959년 12월까지 현재 완료된 작품들이며 연재소설이 아닌 경우 인용 면수만 표시함)

〔표 2〕를 통해 알 수 있듯, 한국의 아동문학에서 아이들은 ‘전쟁’으로 부모를 잃고 고난을 겪다가 환상 속에서 부모와 만나거나 우연히 부모를 대리하는 구원자와 만난다. 이때, 주인공의 아버지가 대부분 ‘납북’된 상태라는 것은 ‘반공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전략이면서 가족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통일의 희망을 남기기 위한 서사 전략이다. 박우보의 「달님이 본 것」은 주인공이 통일을 염원하면서도 이북에 비해 살기 좋은 이남의 환경 탓에 월남한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는다고 원망한다는 점에서 반공 서사의 연장선에 놓여 있다. 이는 세계 아동문학에서 보호자의 죽음이 대부분 병사(病死)나 사고로 처리된 것과는 다른 부분이다. 또한, 외국 아동문학에서 죽음을 맞게 된 고아가 천상으로 오르거나 어린이들이 상상과 우정으로 고난을 극복해 가는 전개를 보이는 것과 달리, 한국의 전후 아동문학에서 주인공 고아는 절대 죽지 않으며 우연히 가족과 만나거나 조력자를 통해 ‘의사(擬似) 가족’을 이루는 데 만족한다.

「플란다이스의 개」가 수록되었던 권호의 『새벗』에는 박화목(본명 박은중)의 소녀소녀소설 「밤을 걸어가는 아이」⁴²⁾의 연재를 예고하는 ‘지은이

41) 당시 신문 및 잡지 기사나 단행본에서 이 작품을 창작한 작가 이은조에 관한 내용을 찾을 수 없어 출신지를 밝히지 못했다.

의 딸이 실린다. 작가는 “6.25 전란을 겪을 때에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오빠와 누이를 잃어버린 아이의 이야기”라고 작품을 요약한다. 그리고 그는 이 이야기가 “슬프고 외로운 이야기가 될런지도 모르나, 새 희망을 품고 닳치는 고생을 견디어 나가는 씩씩하고 용감한 모습을 보일 것”이며, 어린이만이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알리고 싶은 바”라고 심경을 밝힌다. 작가는 소설의 주인공 이름을 ‘김일동’으로 짓는다.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에는 이 사내아이와 같은 아이들이 아주 많아서 흔한 이름을 부르고 싶은 것’이라 쓴다.⁴³⁾ ‘일동’은 ‘어떤 집단의 모든 사람’을 뜻하기도 한다. 작품을 시작하는 “195×년 이른 봄”이란 시간적 배경에서 알 수 있듯 작가는 1950년대 우리나라 어린이 모두가 겪었던 전쟁의 고통을 ‘일동’이란 보편성에 기대어 서사화한다.

부모 형제를 잃고 형과 동생을 찾으려 서울의 충무로 일대를 헤매는 일동, 피난지 부산에서 담배를 파는 혜순(일동의 여동생)을 묘사하며 작가는 유엔군의 구두를 닦거나 그들에게 물건을 파는 아이들, 피난지에서 담배를 파는 아이들을 풍경처럼 묘사한다. 초등학교에서 돌아오는 아이들의 시선을 피해 거리를 헤매다가 일동은 엄마 꿈을 꾸기도 하고, 설렁탕집에서 밥을 얻어먹기도 한다. 혜순은 6.25사변 전 아버지 밑에서 일하던 기동이 아버지네 집에 얹혀살며 담배를 팔지만 기동 어머니의 꾸중을 듣거나 담배팔이 사내아이들의 심술 때문에 고난을 겪는다. 혜순은 결국 일동 어머니의 소개로 전쟁미망인의 집에 입양되어 간다.

학교 앞에서 아이들에게 “거지 아이”라고 놀림을 받거나, 군고구마를 훔치다 들켜 경찰서로 끌려갈 뻔한 일동은 박학수 목사의 구원을 받는다.

42) 「밤을 걷어가는 아이」는 미완의 작품이지만, 박화목이 1954년 정음사에서 발행한 소년소녀 소설집 『밤을 걷어가는 아이』에 그대로 수록된다. 소설집에 실린 후기에 따르면, 이 작품은 시나리오화를 염두에 두고 쓴 것으로, 『새벗』에도 이 작품을 ‘지은이와 의론 없이 영화로 만들거나 연극으로 꾸미는 것을 금한다’는 문구가 작품 끝에 덧붙여 있다.

43) 박화목, 『밤을 걷어가는 아이』, 『새벗』, 새벗사, 1953. 3, 70면.

일동은, 전란 통에 아들을 잃은 아주머니와 함께 목사의 집에서 살게 되는데 그는 이곳에서 가족애를 느끼며 박학수 목사를 “아버지”나 “선생님”처럼 섬긴다. 후에 일동은, 미국인 중군목사 우일람과 함께 지내게 되어 그는 두 목사를 통해 기독교를 처음 접한다. 우일람 목사는 박학수 목사가 미국 신학교에 다닐 때 한 반에서 공부하던 친구다. 우일람 목사는 서울에서 50리가량 북쪽에 있는 전선의 부대에서 지낸다. 자신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준 구두닦이 영길을 미국으로 유학 보낸 후 우일람 목사는 일동을 캠프로 데려다 함께 지낸다. 일동은 형 일수를 찾기 위해서라도 우일람 목사의 캠프에서 지내지만, 낯선 언어와 사람들 속에서 “쓸쓸함과 외로움”을 느낀다. 작가는 일동이 한국인 목사의 집에서 느끼던 따뜻함과는 다른 정서를 부각하는데, 여기에는 민족적·문화적 차이에 대한 작가의 자의식이 담겨 있다.

일동이가 캠프에서 느끼는 부정적인 심리는, “프라이덤(자유)을 위해”⁴⁴⁾ 싸우다 전장에서 상처 입은 유엔군의 모습을 보면서 찾아든다. 여기에는 우일람의 계도적 언사가 개입한다. 소설에는 ‘우일람→박학수→한국의 전쟁고아’로 향하는 계몽의 구도가 설정되어 있다. 이 때문에 우일람의 시선으로 한국의 고아를 바라보는 박학수, 미국인의 시선으로 유엔군과 중국인 포로를 바라보는 일동의 모습이 두드러진다. 그리고 미국인 중군목사 우일람이 한국의 전쟁고아를 위해 노력하는 장면은 소설에서 기독교적 사랑의 실천으로 미화된다. 그러나 우일람 목사가 한국의 고아를 위해 헌신하는 태도는 매우 다층적인 문제를 내포한다.

“전란 때문에 부모와 형제를 잃어버리고 고아가 된 코리안의 아동 문제를 잊어버릴 수는 없어요. 만일, 이 중요한 문제를 어른들이 잊어버린다면, 우리가 아동들에게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⁴⁵⁾

44) 박화목, 「밤을 걷어가는 아이(7)」, 『새벗』, 새벗사, 1953. 10, 55면.

45) 박화목, 「밤을 걷어가는 아이(4)」, 『새벗』, 새벗사, 1953. 7, 41면.

“미스터 박, 한국의 아이들을 그냥 버려두면 불량소년의 수요가 자꾸 더 늘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요. 집 없는 아이, 부모를 잃은 아이, 어른들에게 버림을 받은 아이, 거리에서 헤매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주고, 그 아이들을 바른길로 인도해야 할 것이요. 아이들이 불량해지는 것은 아이들의 죄가 아닙니다. 어른들이 돌보아주지 않은 죄가 더 크다고 나는 말하고 싶어요…….”⁴⁶⁾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 그는 전쟁을 일으키고 지속하는 어른의 입장에서 죄책감을 느낀다. 어린이를 보호해야 하는 어른이라는 당위적 관점에서 보면, 우일람 목사의 어린이 보호론은 당시 한국 정부가 부랑아를 ‘소탕’과 ‘처벌’의 대상으로 보았던 통치 담론을 비판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그에게도 “바른길”이라는 목사로서의 이념적 가치 판단이 작동한다. 이 같은 기독교적 계몽 논리는 자기모순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우선, 종교적 판단하에 어린이를 불량과 선량으로 가르치고 죄인으로 낙인찍는 이분법적 논리는 잔존한다. 또한, 우일람이 언급한 “어른”으로서의 죄책감에는 피해해진 병사들에게 종교적 위안을 제공할 뿐 아니라 종교적 군기 진작을 임무로 삼은 중군목사로서의 숙명이 작동하고 있다. 기독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살인을 금한다. 전장에서 예수의 사랑과 평화를 말하며, 전쟁의 당위성을 설파하고 전몰 군인의 희생을 강조해야 하는 그는 전장 위의 ‘지도자’이다. 한국의 전쟁고아에게 보이는 그의 애착과 연민은 물리적, 종교적 어른으로서 느끼는 죄책감을 고아의 아버지 되기로 상쇄한다는 측면에서도 문제적이다. 박화목의 소설이 미국인 중군목사를 중심으로 고아의 교화와 고아의 아버지 되기를 다룬다고 할 때, 이 소설은 남한 사회를 보호와 계몽의 대상으로, 어린이를 속죄의 수단으로 삼는 문제를 안게 된다.

강소천의 「해바라기 피는 마을」은 1955년 3월부터 서울방송국에서 25

46) 박화목, 「밤을 걷어가는 아이(8)」, 『새벗』, 새벗사, 1953. 11, 40면.

회에 걸쳐 연극으로 방송한 것을 소설로 고쳐 쓴 것이다. 그리고 이 작품은 다시 영화화된다. 소설에서 고아가 된 정희는 담배장사나 친척집 식모로 고생하다가 자살을 시도하지만 친구와 선생님 그리고 위문편지를 주고받던 육군 소위를 통해 위로받고, 결국 소위의 어머니에게 입양된다. 강소천은 이 작품에서 학교 내에서 갈등하고 화해하는 어린이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아이들은 화재를 당한 정희를 위해 “위문금”을 모집하기도 하고, “전국어린이예술제”에 출전하기 위해 주인공을 선출하는 “어린이회”를 열기도 한다. 그 과정에서 학교의 교사는 무언가를 지시하기보다 의견을 중재하는 역할로 등장한다.⁴⁷⁾

이 같은 모습은 강소천이 『새벗』의 주간이었던 전택부와 1954년 새벗사에서 번역·출판한 『(민주주의 독본) 새마을 초등학교』의 연장선에 놓여 있다. 이 책은 전택부가 부산 USIS(미국공보원) 도서관에 갔다가 우연히 발견한 『민주주의연극』을 번역한 것이다. “새마을 국민학교 6학년” 학급이 연극을 준비하는 과정을 에피소드 형태로 엮은 것인데, 이 책에서 강소천과 전택부는 독자들이 ‘민주주의’의 의미를 배우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란다든 후기를 남긴다. 그들은 민주주의와 개인의 인권을 강조하고, 그 실천 방법으로서 ‘어린이회’를 언급한다.⁴⁸⁾

강소천은 소설 「해바라기 피는 마을」을 예술제 준비 과정으로 전개하며, 어린이가 학교생활 중에 내면화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작품

47) 어린이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문화행사와 그 행사를 돕는 교사의 역할은 강소천의 연재소설 「꽃들의 합창」에서도 반복된다. 작가는 이 작품의 마지막에 “육이오 동란을 겪은 한국을 꽃동산으로 비해 만든 가극”인 ‘꽃들의 합창’을 배치하고 그 기획 과정을 담는다. 소설의 주인공인 ‘옥화’는 그림 실력으로 무대를 꾸미고, ‘영애’는 “우리나라 국화인 무궁화 역”으로 등장한다. 이로써 아이들의 슬픔과 재능, 교사의 연민과 조력을 담은 이 작품은 국가적 희망의 서사로 귀결된다. 강소천, 「연재소설: 꽃들의 합창(12)」, 『새벗』, 새벗사, 1958. 3, 95면.

48) 강소천, 「이 책을 읽는 어린이들에게」, 전택부· 강소천 역, 『(민주주의독본) 새마을 국민학교』, 새벗사, 1954, 93-94면; 전택부, 「어린이들을 지도하는 분들에게」. 위의 책, 97-98면. 전택부는 이 책을 어린이, 어린이를 교육하는 교사, 국가제건을 위해 헌신하는 정치가들에게 읽으라고 권한다.

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다. 정희가 어머니를 잃고 학교를 그만두게 되면서 연극 '남매일기'⁴⁹⁾ 연습에 시행착오를 겪지만, 예술제 우승으로 사건은 잘 마무리된다. 그 과정에서 작가는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질투심, 수치심, 동정심, 연민 등의 감정을 담아내는데, 정희와 친구들이 보여주는 감정의 문제는 전후 어린이가 문학을 독해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있다. 감정이입의 메커니즘에서 '연민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상력의 운동이 몇 가지 방식으로 차단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바로 '사회적 구별짓기'에 의한 수치심, 질투심, 혐오감이다.⁵⁰⁾ 이 작품에서도 부유한 집의 금란이는 정희에 대한 아이들의 동정과 연민을 이해하지 못하고 정희를 괴롭힌다.

『새벗』의 독자란인 '독자의 소리'와 '새벗 구락부'를 보면 이 소설의 주인공 정희에게 감정이입한 독자들이 정희를 행복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글이 자주 실린다. 정희의 이야기가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와 비슷해 강소천 선생님을 만나고 싶다는 독자, 자신의 지난날을 온 세상에 알리는 어린이 문학가가 되고 싶다는 독자까지 등장한다. 다른 사람의 곤경 속에서 내가 그러할 가능성을 보며, 남을 돕는 단계로 나아가는 연민의 메커니즘은 강소천을 비롯한 전후 아동문학 작가들이 자주 쓰는 방식이다. 전후의 고통을 연대로 승화시키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이기 때문이다.

다만, 강소천의 소설에는 어린이만이 아니라 '육군 소위 김철진'이 등장하면서 그 연민의 방향이 국가주의와 결합하게 된다. 정희와 육군 소위는 '해바라기' 그림과 시를 통해 서로를 위로해 주는데, 육군 소위는 정희의

49) 강소천, 「해바라기 피는 마을(4)」, 『새벗』, 새벗사, 1955. 10, 99면. 연극 '남매 일기'는 사변으로 아버지를 잃은 두 오누이가 어머니를 도와 공부해 나가는 눈물겨운 이야기로 요약되어 있다. 「해바라기 피는 마을」 제11화(1956.5)에는 '남매일기'가 '오누일기'로 쓰여 있기도 하다. 강소천이 같은 해 『새벗』에 동화 「오누일기」를 발표한 점을 미루어볼 때, 두 작품은 상호텍스트성을 지닌다고 하겠다.

50) 마사 누스바움, 앞의 책, 623-627면.

연극제를 앞두고 전사한다. 이 때문에 정희와 소위는 결국 만나지 못하지만, 둘 사이를 알게 된 철진의 어머니는 정희를 딸로 데려다 키운다. 정희의 입양은 철진의 어머니에게 죽은 아들이 남긴 상실감과 외로움을 메우는 방법이면서 모성애를 연장하는 방법이다. 또한, 철진의 어머니는 철진의 여동생을 6.25전쟁 때 잃는데, 그녀는 딸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고 정희가 딸로 살아나 자기 곁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 그녀에게 입양은 정희라는 존재, 즉 아이의 삶 자체를 인정하고 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두 자식을 대리보충하는 수단이 된다.⁵¹⁾

이 같은 소설의 내용은 영화로 각색되면서 큰 변화를 겪는다. 정희가 큰아버지 댁에서 큰어머니의 구박을 받으며 지내다가 자살을 시도할 때, 친구 춘식의 도움으로 죽음을 면하는 것이 아니라, 육군 소위가 정희를 살려내는 형태로 내용이 전개되는 것이다.⁵²⁾ 이러한 변화는 작위적이지만 당시의 관점에서 보면 완전한 해피엔딩이다. 육군 소위를 영웅으로 만들고, 정희를 새로운 가족 구성원으로 편입시키는 결말은 정희가 겪어낸 전후의 고통을 국가의 서사로 승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결말은 남성적 지배와 연민의 양립 불가능성을 간과한 결과이다. 연민의 메커니즘과 그것의 학습은 ‘모든 인간 존재의 공통된

51) 고아와 입양자(새로운 보호자) 사이의 이 같은 관계는 강소천의 「꽃들의 합창」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여학생인 고아들은 교사와 화가에게 강한 애착을 보이고 자신의 결핍을 그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채우려는 태도를 보인다. 또한, 교사가 고아인 제자들에게 보호자 되기를 자처할 때 교사는 제자의 재능을 발견하고 펼칠 수 있게 돕는 데에서 나아가 그들이 슬픔에 머물기보다 희망에 관해 생각하고 표현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이 같은 관계는 고아가 부모의 부재를 이야기하거나 슬퍼할 기회를 박탈한다. 이로써 작가는 고아들이 자신의 슬프고 외로운 감정을 억압한 채 그들에게 사회적으로 요청되는 희망을 빠르게 실현한 상태로 만든다.

52) 현재 영화 『해바라기 피는 마을』의 영상은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상의 변화는 『새벗』의 영화 소개란에 사진과 함께 상세히 제시되어 있다. 「해바라기 피는 마을」, 『새벗』, 새벗사, 1958. 4, 6-15면. 당시 독자란에는 영화의 몇몇 장면과 소설 줄거리를 함께 제시한 이 내용을 “사진소설”로 받아들인 독자의 긍정적 평가와 ‘이 작품의 주인공 정희와 자신이 꼭 같은 처지지만 정희에겐 소위 오빠가 있어서 참 좋았다’는 독자의 의견이 실렸다. 「새벗 구락부」, 『새벗』, 새벗사, 1958. 6, 100면.

취약성에 초점을 맞출⁵³⁾ 때 가능해진다. 통상적으로 연민이 반응하는 불행, 즉 죽음, 부상,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 굶주림, 가난 등은 실제적이고 일반적이다. 이 때문에 연민을 위해서는 전지전능함을 포기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영화 「해바라기 피는 마을」은 육군 소위의 영웅성을 선택함으로써 정희와 정희 주변의 인물들을 향한 연민을 차단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것은 작가가 소설을 쓰며 지향했던 민주주의와도 상치된다. 작품의 결말에 등장한 구원자(군인)가 어린이들 사이의 우정, 고아와 미망인 사이의 가족애⁵⁴⁾를 압도하며 서사를 종결시킨 점은 당시 아동문학에 드러온 국가주의의 역효과를 보여준다.

전후 정치적 이념은 아동문학이 독자인 어린이에게 애국심을 고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했다. 소설가 김이석이 「해와 달은 누구를 위해」 연재를 예고하며, 6.25사변 이후 고난을 이기고 살아남은 소년 소녀에게 자신의 작품에서 힘을 얻어 “우리나라를 더욱 훌륭한 나라로 만드는 일군이 되어”⁵⁵⁾달라고 부탁했던 것은 당시 아동문학이 지닌 역할성을 드러낸다. 소설을 연재하기 전부터 작가는 소국민을 각성하는 선도자의 위치에 선다. 그의 태도는 소설 「해와 달은 누구를 위해」의 ‘정 선생’과 동례에 놓인다. 정 선생은 미군 부대에서 일하며 그곳에서 일하는 ‘태섭’의 스승 되기를 자처한다. 태섭의 아버지는 정 선생의 학창시절 은사인데, 그는 6.25 전까지 과학자이면서 신문사 편집자로 일하다가 인민군에게 납치된다. 정 선생은 납북된 은사의 아들에게 공부를 시키고, 작품 결말에 이르러서는 미군 부대 내 고아들 전체의 스승으로 거듭난다.

태섭이 정 선생과 만날 수 있었던 것은 태섭이 학교를 포기하고 미군

53) 마샤 누스바움, 앞의 책, 636면.

54) 강소천은 작품의 연재를 마치며, “이 소설의 주인공 아닌 다른 정희와 명순이와 춘석이와 그리고 금란이가 많이 여러분의 주위에 살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도와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쓴다. 강소천, 「해바라기 피는 마을」을 끝마치고, 『새벗』, 새벗사, 1956. 8, 107면.

55) 김이석, 「연재소설 예고: 필자의 말」, 『새벗』, 새벗사, 1955. 10, 102면.

부대 모터풀에 들어가기로 결심한 탓이다. 어머니와 살며 신문 배달을 하던 태섭은, 두 가지 희망을 품는다. 첫째는 자신의 손으로 차를 수리하며 일선에서 싸우는 군인처럼 되는 것이고, 둘째는 미군 부대에 들어가 비행기를 만들어 아버지를 모셔오는 것이다. 그러나 태섭이 부대에서 하는 일은 ‘오덴’이라는 준위의 “하우스뽀이” 역할이다. 그곳에서 태섭은 ‘쫘’이라 불리는데 이 같은 ‘이름 바꾸기’는 고아 서사에서 매우 자주 등장한다. 원래의 이름을 마음대로 바꾸어 부르는 상황에서 어린이에게 선택의 여지는 없다. 본래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폭력 앞에서 어린이는 무력하다.

부대에서 ‘태섭’을 ‘태섭’으로 부르는 사람은 정 선생과 다른 고아들뿐이다. 정 선생은 태섭에게 교과서를 구해다 가르치고, 다른 아이들은 태섭과 갈등을 겪지만 각자의 불우함과 외로움을 이해해주는 모습을 보인다. 고아들은 태섭이 공부하는 모습을 부러워하다가 결국 함께 공부하게 되는데 정 선생은 이들에게 “소년단”⁵⁶⁾을 결성해 보라고 권한다. 이들은 소년단을 결성하여 “국군”을 위로하는 연극을 해보기로 한다. 이 과정에서 태섭은 연극 대본 창작을 맡는다. 태섭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꿈에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만난 이야기를 연극 대본으로 쓰며 어머니 상실의 슬픔을 이겨내고, 과로로 쓰러진 몸을 추스른다. 태섭은 연극으로나마 어머니와 아버지를 만나는 일이 자기 혼자만의 즐거움이 아니라 부대 내 고아 친구들 모두의 즐거움이자 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소설에서 태섭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장례식이 끝난 후에야 어머니의 사망 소식을 접하는데, 이는 태섭이의 충격과 슬픔을 줄이기 위해 정 선생이 어머니의 죽음을 숨겼기 때문이다. 이 같은 결정은 작가 김이석의 창작 의도와 직결된다. 작가는 태섭이가 어머니의 죽음을 애도할 시간을 갖지 못한 채 연극 대본 쓰기로 슬픔을 억누르게 만든다. 대본이 다 완성

56) 김이석, 「해와 달은 누구를 위해 (8)」, 『새벗』, 새벗사, 1956. 9, 45-46면. 김이석은 작품에서 ‘태섭’의 입을 빌려 소년단을 “대한의 아들”로 표현하며 “소년단을 위해 힘쓰는 것은 나라를 위해 힘쓰는 것과 같”다고 말한다.

된 후 고아들은 연극이 끝나고 부대가 떠나도 그곳에 남아 정 선생과 함께 ‘학교를 짓고 황무지에 씨를 뿌리기’로 결심한다. 어린이의 손으로 개척된 땅, 즉 새 국가 건설을 상징하는 이 같은 결말은 김이석이 소설 연재를 시작하며 독자에게 바랐던 바와 통한다.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며 함께 배우고 새로운 삶을 개척하려는 ‘소년단’의 의지는, 불우하고 불량했던 부대 내 고아들의 각기 다른 성장 이야기를 국가의 서사로 봉합한다.

작가 김이석은 소설 속 고아들이 자신이 겪은 전쟁의 상처를 극복한 것으로 그린다. 이 서사에는 중학교 입학을 앞둔 나이의 어린이들에게 전쟁의 기억을 서둘러 잊고 성장하기를 바라는 어른의 조급증이 깔려 있다. 학교를 짓고 땅을 일군다는 고아들의 계획은 ‘지배의 판타지’에 연결되어 있다. 이 지배의 판타지는 인간 본래의 ‘취약성을 부인’한다. ‘취약성을 진지하게 사유하는 것은 반(反)-군사적인 정치적 해결책을 주장하는 데 근거가 될 수 있다.’⁵⁷⁾ 그러나 전후 한국의 작가들은 인간 본래의 취약성을 사유할 여유도 없이 더 강하고 씩씩한 어린이를 내세워 서사를 전개한다. 앞서 [표 2]에서 살핀 많은 수의 작품들이 이북 출신의 월남 작가가 창작한 것임을 감안할 때, 이는 작가가 자신의 정치적 취약성을 은폐하려는 (무)의식과도 관련된다.

한국전쟁 이후의 정치적 이념이 아동문학 본래의 의도를 압도했다는 점은 부정적 효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작가들은 어린이가 취약성 자체에 대한 사유, 즉 우리가 정복당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상실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사유와 함께 머무를 기회를 박탈한 채, 어린이 스스로 취약성을 부인하거나 질책하도록 독려했다. 이것은 어린이가 자신을 미숙한 존재로 치부하게 하거나, 역으로 지배의 판타지에 머물게 했다.

57) 주디스 버틀러, 양효실 역, 『불확실한 삶: 애도와 폭력의 권력들』, 경성대학교 출판부, 2012, 58면.

4. 문화자본 『새벗』에 담긴 국민국가 담론과 어린이의 서열화

새벗사에서는 잡지를 간행하며 독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현상문예, 어린이 행사, 독자 앨범 등 여러 방법을 시도했다. 그중 독자들이 원고를 보내면 작가들이 심사하여 우수한 작품을 『새벗』에 실어 주는 “현상작문” 제도가 운영되었다. 이때, 산문은 강소천이 심사를 했다. 좋은 작품의 부족 탓으로 이 코너는 오래 유지되지 못했지만, 초반에 이 “현상작문”에 당선된 작품 중에는 ‘고아’ 관련 이야기가 많이 등장했다. 「불쌍한 아이」(1953.3), 「아저씨가 준 돈」(1953. 4), 「신문 파는 아이」, 「착한 아이」(1953. 7) 등 제목만 보아도 당시 어린이들이 주변에서 자주 접하는 불우한 처지의 아이를 소재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은 길가의 거지 아이에게 밥이나 돈을 주는 마음,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아이를 동정하는 마음을 표현했다. 그 가운데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쓴 「불쌍한 아이」라는 글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왜 저 사람은 저 아이를 그렇게 박대할까? 이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일민주주의의 한 구절인,

“한 핏줄 한 민족”을 그 사람이 생각했으면,

“어서 들어오너라.” 하고 말하였을 것이다. 왜 그 아이는 단군의 한 핏
줄을 받았으며, 다 같은 대한의 아들 딸이 아니라? 하는 생각 끝에 나는
그 아이를 데리고 우리 집으로 왔다.(중략)

“너희 아버지 계시냐?” 하니까 그 아이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는 공산군한테 총살을 당했어.”

하며 눈물을 닦는다. (중략)

내가 장차 크면 큰 고아원을 세워놓고, 거리의 모든 고아들을 따뜻이
길러주겠다고 결심하였다.⁵⁸⁾

58) 조종연, 「불쌍한 아이」, 『새벗』, 새벗사, 1953. 3, 62-63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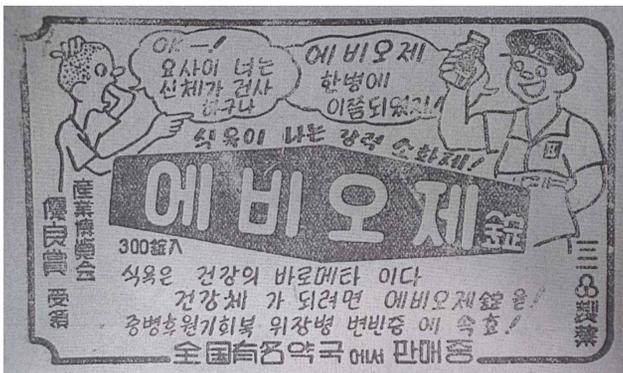
중학생은 자신의 경험을 글로 표현했다. 그는 이승만 대통령의 일민주의를 되새기며, 동냥하는 고아를 박대하는 어른을 부정적 시선으로 그린다. 고아를 데려다 밥을 먹이며 아이의 사정을 들은 중학생은 눈물을 흘리고, 떠나가는 아이의 뒷모습을 보며 고아원 설립의 결심을 다진다. 이 작품은 당시 남한 사회가 지향했던 민족주의, 반공주의, 박애주의를 모두 담고 있다. 이 작품을 뽑은 강소천은 작품 뒤에 “선평”으로 ‘이 글을 읽은 누구나 좋은 글을 쓰려면 먼저 좋은 마음을 길러야 한다는 것⁵⁹⁾을 느낄 것이라고 쓴다. 심사자인 그가 작품성을 판단할 때, ‘좋은 마음’을 무엇보다 중시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이때의 ‘좋은 마음’이 앞서 언급한 이승만 정권의 이념과 합치함은 물론이다. 그 이외의 작품에도 강소천은 고아와 관련한 작문에 “아름다운 이야기”라는 선평을 남기는데, ‘불쌍한 아이’를 돕고 기뻐하는 어린이의 미담은 항상 어린이의 연민과 그에 따른 실천의 문제와 관련된다.

앞선 [표 2]에 언급된 「열세 동무」라는 희곡 역시 그 연장선에서 이해될 수 있는 작품이다. ‘소년소녀소설을 본따 “열두 동무회”를 결성한 열두 명의 아이들이 30환씩 구호금을 모아 학비를 마련하고 아이들 중 한 명인 정애의 어머니가 구호금으로 전재고아를 공부시킨다는 내용이다. “적당한 고아를 발견”(22)하는 일만 남은 때, 우연히 정애네 집 앞에 수첩을 떨어뜨린 ‘중호’가 입양아로 선택된다. 이 과정에서 정애 어머니가 중호에게 확인하는 것은 세 가지이다. 고향에 부모 형제가 있었는지, 학교에 다녔는지, 침략자가 일으킨 전쟁이 그것을 모두 빼앗아갔는지의 여부다. 수첩에 담긴 중호의 시를 보면, 중호는 이북에서 피난 온 아이다. 정애네 식구이자 ‘열두동무회의 형제’가 된 중호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얼떨떨해하고, 아이들은 중호를 예외싼 채 합창을 한다. 이 같은 고아 서사는 구원받을 자격을 심문하고, 오로지 구원자의 관점에서만 부각된 시혜성과 만족감을

59) 강소천, 「선평: 뽑고 나서」, 위의 책, 64면.

남긴다.

돕는 자(구원자)와 도움받은 자(구원당한 자)라는 위계의 문제는 잡지 『새벗』의 광고나 새벗사가 주최하는 행사에서도 나타난다. 잡지 『새벗』에는 점차 광고가 늘어나는데, 그 가운데 잡지 첫 면이나 표지를 장식한 것은 바로 ‘에비오제’와 ‘원기소’ 등 영양제 광고였다. 이 영양제 광고는 “건강체(健康體)의 중요성을 강조하거나 “국력의 증진”, “나의 건강은 나라의 희망”과 같은 국가적 건강 담론과 연결되었다. 근육질의 남아, 학생 모를 쓴 건장한 남학생, 색동옷을 입고 통통한 볼 위에 미소를 띤 남아의 얼굴은 광고의 주된 표상이었다.



[그림 2] 『새벗』에 실린 ‘에비오제’ 광고(1956.12). 에비오제를 복용한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의 신체가 대조적으로 그려져 있다.

전후 새 국가 건설이라는 난제 속에서 고아, 기아, 미아 등으로 소외된 아동이 ‘국민으로 인정받기 위해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바로 ‘건강’이었다. 그러나 “인당 일일 삼 환의 금액에 양쌀, 조, 수수밀 등 잡곡을 합하여 인당 일일 삼 홉씩에 불과”⁶⁰⁾한 정부의 국고 보조에 의지했던

60) 「기반 없는 육영사업」, 『조선일보』, 1953. 11. 18. 기사에 따르면 고아원 책임자들은 이 국가보조가 실제 비용의 십분지 일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일부 고아원의 당사자들은 그들이 가

고아원의 아이들, 구걸하러 다니던 부랑아들은 늘 굶주림에 시달렸다. 잡지 광고에 전면화된 건강체는 고아들이 도달하기 어려운 이상적인 몸의 형상이었다. 잡지에서 강조했던 ‘건강한 어린이’ 담론은 상대적으로 보호받지 못한 고아들의 몸을 ‘비정상적’이고 ‘불량한’ 상태로 만들었다.⁶¹⁾

어린이의 서열화는 건강성만이 아니라 경제성의 측면에서도 나타난다. 1950년대 새벗사에서서는 어린이날을 맞아 5월이 되면 ‘어린이 잔치’, ‘우리들 자랑’ 같은 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가 끝나면 잡지에는 행사의 장면, 무대에 올랐던 어린이들의 면면을 사진으로 실었다.⁶²⁾ 1952년에 열린 어린이 잔치 관련 기사를 보면, “전쟁 중에 시달리고 거처리진 모든 어린이들을 즐겁게 해주고져 특별히 ‘해군어린이음악대’⁶³⁾와 ‘은련유치원’ 어린이들의 봉사로 어린이 잔치를 베풀기로 되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런데 이 기사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어린이 잔치’가 실상 피난지의 모든 어린이를 위한 것일 수 없었음을 알게 된다. 이 행사에 올 때 “새벗 잡지 제오월호 어린이 잔치 초대권인 꽃을 달고 와야 된다”⁶⁴⁾는 단서가 붙어 있기 때문이다. 『새벗』을 구매한 어린이만이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전제는 피난지의 척박한 환경에서 개최되었던 어린이 행사의 희소성을

지고 있는 농장 등 각종 후생사업에서 나오는 돈을 여기에 기울이는 한편 ‘씨에이씨’의 원조와 ‘유엔군’의 호의적인 원조에 의지하고 있었다.

- 61) 강소천의 소설 「꽃들의 합창」에서 오줌싸개 아이가 집을 뛰쳐나와 고아원을 전전하다가 야뇨증을 고친 후에야 집으로 돌아간 일화 역시 이 같은 건강 담론과 연결된다.
- 62) 잡지 『새벗』은 새벗사에서 개최한 대회 이외에도 전국 단위로 개최된 대회 수상자의 사진, 시상식 사진, 부모의 사회적 지위나 가정 형편 등을 기사화했다. 「전국 국민학교 학생 산수과 경시대회에서 제1위를 차지한 함철수 군」, 『새벗』, 새벗사, 1959. 12, 86-87면.
- 63) 1951년 4월 해군본부 정훈감실에서 전쟁 중 부산으로 피난 내려온 아이들을 모아 조직했다. 일곱 살에서 열두 살 사이의 아이들 25명으로 구성된 ‘해군 어린이 음악대’는 국내 장병 위문 공연, UN군 장병 위문공연, 외국인 환영 행사 등에 참여했으며, 전시 동요를 보급하였다. 1953년 7월 휴전 이후 ‘해군 어린이음악대’는 ‘한국 어린이 음악 사절단’으로 이름을 바꾸어 미국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공연했다. 중앙일보사 편, 『민족의 증언』7, 중앙일보사, 1983, 130-132면; 이강숙·김춘미, 『우리 양악 100년』, 현암사, 2001, 263면.
- 64) 「어린이 잔치 5월 4일에」, 『경향신문』. 1952. 5. 4.

돌아보게 한다.

당시 잡지 『새벗』의 가격은 2,500원이었으며, 1953년에는 3,000원에 판매된다. 그때 전차 요금이 한 구간당 300원이었으며, 목욕값은 1,800원, 커피 한 잔 값이 2,600원, 계란 15개가 6,000원이었다.⁶⁵⁾ 잡지를 구매하여 어린이 잔치 초대권을 얻을 수 있는 아이들은 한정되어 있었다. 게다가 『새벗』은 고아원의 아이들도 읽고 사연이나 사진을 보냈던 잡지인 만큼 한 권의 잡지를 여러 명이 돌려 읽어야 했던 독자들에게 초대권 지참이라는 조건은 커다란 제약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었다. 이 같은 사정을 의식한 것인지 1953년 환도 기념 어린이 잔치에서는 ‘사변 중에 부모님을 잃어버린 고아 3백 명, 집이 가난해서 『새벗』을 사보지 못하는 아이들도 초대’⁶⁶⁾해서 행사를 개최한다. “새 마음 새 결심을 가지고 새나라 건설에 힘쓰게 하자”는 취지인 만큼 그간 행사에서 배제된 어린이들에게 행사의 문턱을 낮춘 셈이다.

이 맥락에서 다시금 번안동화 「플란다아스의 개」에서 고아 ‘네르로’가 물감 살 돈이 없어서 대회에서 낙선하고, 크리스마스 전날 예배당에서 죽음을 맞은 장면을 돌아보게 된다. 각종 대회에서 1~3위를 차지하여 『새벗』에 얼굴을 알린 어린이 수상자가 가정에서 안정적으로 지원을 받으며 자신의 실력을 쌓아올렸다는 점은 자명한 사실이다. 수상 소식을 전하는 기사에 실린 가족사진, 부모님의 사회적 지위를 노골적으로 알리는 사적 정보들은 수상자가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축적할 수 있었던 문화·경제적 배경을 환기한다. 그러므로 ‘어린이 잔치’, ‘우리들 자랑’ 같은 기사는 『새벗』을 읽는 독자들에게 선망을 넘어 사회적 위계에 따른 절망감을 안기기에 충분했다. 환도 이후 새벗사가 주소지를 서울로 옮긴 후, ‘새벗 구락부’(독자란)에 집이 시골이라 잡지를 구할 수 없는데

65) 「쌀값 오르자 모두가 경충」, 『동아일보』, 1952. 3. 13; 「물의 많은 다(茶)값 인상」, 『조선일보』, 1952. 12. 5.

66) 「어린이 잔치 뒷소식」, 『새벗』, 새벗사, 1953. 12, 29면.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이 수차례 반복되는 점, 자신은 고아인데 ‘고아들도 대통령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을 잡지사에 보내 온 소년의 일화⁶⁷⁾ 등은 독자 스스로가 잡지를 읽으며 느낀 문화적 격차를 그대로 드러낸다.



〔그림 3〕 새벗 앨범에 실린 ‘안양 기독교육원 새벗 독자들’이라는 제목의 사진(1956월 12월호)

새벗사에서는 독자가 보내온 사진을 모아 ‘새벗 앨범’이란 코너에 수록했다. 이 코너에는 자기의 얼굴을 잡지에 신고 싶은 아동 독자의 독사진이나 형제자매의 사진이 실렸다. 1950년대 『새벗』의 ‘새벗 앨범’ 코너에 고아원 아이들의 사진이 실린 것은 [그림 3]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교사 주변으로 둘러앉은 사진 속 아이들의 모습은 ‘연출된’ 단정함과 단란함의 일면을 담고 있다. 이 사진은 당시 『새벗』이 고아원에 유통되었음을 알려 줌과 동시에 오로지 단체 사진으로만 자신의 독자됨을 증명할 수밖에 없었던 고아들의 열악한 처지까지도 일깨운다.

그렇다면, 『새벗』은 어른의 세계에 지배당한 어린이의 잡지로만 남게 된 것일까. 이영희의 「사탕나라 꿈나라」와 손창섭의 「싸움동무」 같은 작

67) 「새벗 구락부」, 『새벗』, 새벗사, 1956. 8, 110면.

품은 특정 이념의 주입이나 서열화 문제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보인다는 점에서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 비록 이들의 작품 수가 많지 않아 앞서 살핀 다른 작가들의 주된 경향에 가려지긴 했으나 두 작가의 작품은 당시 『새벗』의 정치·문화적 경향과 거리를 두고 공존했던 특기할 사례이다.

그중 이영희의 작품은 판타지의 세계를 다루는데, 이 환상성은 [표 1]에서 본 찰스 킹즐리의 작품 「물 아이」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 「사탕나라 꿈나라」에서 주인공 민수는 인어의 섬이나 사탕나라 등을 돌며 현실을 잊고, 다른 한편 현실 세계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단계로 나아간다. 가령, 가족이 서로 피부색이 다르고, 임금님의 얼굴이 새까맣기에 인종은 사회적 지위나 정체성과 무관하다. 또한, 항상 인간에게 타자화되어 있던 ‘인어’가 사람을 구경거리로 만든다는 설정을 통해 작가는 주인공이 인어에게 공포를 느끼게도 하고, ‘인어의 슬픈 노래’를 들으며 슬픔과 기쁨이 뒤섞여 공존하는 세상에 대해 이해하는 길을 열어주기도 한다.

이 같은 내용은 박홍근이 찰스 킹즐리의 동화 「물 아이」를 동시에 개작하며 작품 자체가 지닌 유머나 풍자를 지우고 물의 여왕을 앞세워 개과 천선의 교훈적 이야기로 변모시킨 것과 다른 부분이다. 무엇보다 이영희의 동화에서 「사탕나라 어른들은 언제나 아이들이 꾸는 고운 꿈을 커서도 꿀 수 있는 사람」⁶⁸⁾으로 등장한다. 이것은 아이의 순수성을 특정 영역이나 연령의 문제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과 아이의 경계를 무화할 때 오히려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음을 뜻한다. 어른이 옳다고 생각하는 이념을 아이에게 강요하지 않기에 이 나라에서는 어린이가 성취해야 할 ‘성숙’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같은 의식은 손창섭의 소년소설 「싸움동무」에도 나타난다. 이 소설은 근대 문화를 내면화한 어린이들과 마주한 덕기라는 고아가 그들과 어

68) 이영희, 「사탕나라 꿈나라 (3)」, 『새벗』, 새벗사, 1956. 9, 31면.

울리며 겪는 갈등을 담고 있다. 동네 아이들은 “기업”(78) 같은 단어를 쓰는 대장 문수의 지배를 받고 그 내부에 서열을 만들어 덕기마저도 서열의 제일 아래에 두려 한다. 덕기는 처음에 아이들에게 일방적으로 당하지만 결국 그들과의 싸움에서 이긴다. 그러나 작가는 작품을 여기에서 끝내지 않는다. 덕기 앞에 무릎 꿇고 덕기를 대장으로 모시려는 아이에게 덕기는 ‘대장되기를 거부’한다. 그는 “그저 우리들은 사이 좋게 지내면 되는 거”라고 말한다. 손창섭은 누가 누구를 일방적으로 지배하지 않고 모두가 재미있게 놀 수 있는 유희의 세계를 지향한다. 손창섭이 『새벗』에 발표한 대부분의 소설이 인간과 동물 사이의 사랑과 연민을 다룬다는 점에 비춰볼 때, 그는 인간성마저도 초월한 우애에서 진정한 해방을 발견하는 면모를 보인다.

이영희와 손창섭이 제시한 문학적 전망은 성인과 아동, 아동과 아동 사이의 위계의식, 아동은 마땅히 어떠해야 한다는 선전의식과도 거리를 둔 것이기에 어른이 어린이를 ‘착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전제를 의문시하게 만든다. 지배문화의 생산과 재생산의 필요조건은 지배 이데올로기의 생산과 재생산이며, 이는 성인과 아동의 관계에서 아동이 절박한 실존 상황을 잊어버리고 상상 속의 실존으로 대체하는 법을 학습할 때 일어난다.⁶⁹⁾ 이영희와 손창섭 같은 몇몇 작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전쟁 후 어린이 잡지 『새벗』이 어린이들에게 주었던 희망은 대부분 전쟁의 상처를 봉합한 채 ‘국가·아버지의 세계’라는 허상에 기대어 유통되었다. 그 결과 전후의 아동문학은 완전히 안전한 세계에 대한 욕망은 훨씬 더 많은 권력과 통제를 필요로 함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었다.

69) 조셉 조네이도, 앞의 책, 24면.

5. 결론

지금까지 잡지 『새벗』에 수록된 아동문학 작품을 통해 잡지에 나타난 정치적 이념이 한국전쟁 이후 어린이의 감정 교육과 맺고 있는 관계를 분석했다. 잡지 『새벗』은 아동의 오락과 교양 증진을 위해 편찬되었으며 그 인기 역시 상당했다. 이 잡지는 전쟁 중에 대한기독교서회의 지원을 받아 발간되었다. 크리스마스 특집호에 실린 희곡, ‘성경이야기’와 ‘시사해설’을 제외하면 노골적으로 종교 교리나 정치의식을 드러내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러나 이 잡지에 수록된 문학작품들에는 한국전쟁 이후 남한 사회를 장악한 기독교와 반공주의 같은 사상적 경향이 반영되어 있다.

한국전쟁 이후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빼앗긴 어린이들에게 『새벗』은 세상과 소통하고, 잃어버린 친구를 찾거나⁷⁰⁾, 이야기로 가족 상실의 슬픔을 달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이것은 전쟁을 겪은 독자들이 자기의 고난이나 슬픔에만 고립되지 않고, 타자의 고통과 직면할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하지만 아동문학 번역 과정에서 천상 세계의 구원으로 나아가는 기독교적 낭만주의는 한국의 아동문학에서 현실 세계의 조력자 등장으로 변용되거나 동심천사주의 지향을 낳았다. 특히, 서사의 중심에 미국을 위시한 권력자의 시혜성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은 고아를 계몽의 대상으로 치부하거나, 어른의 죄책감 덜기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우리는 격리된 유년기를 가졌기 때문에 성숙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을 지향하기 때문에 미성숙한 것”⁷¹⁾이라는 가라타니 고진의 말처럼 군대나 학교와 같은 제도가 설정해 둔 성숙의 기준 앞에서 우리는 항상

70) 잡지 『새벗』의 표지에는 매호 어린이의 사진과 함께 사진 속 어린이의 학교와 이름이 실렸으며, ‘새벗 구락부’에는 친구를 찾기 위해 자신의 주소와 이름 그리고 자신이 살았던 고향, 그곳에서 사귀었던 친구의 이름을 보내오는 어린이가 많았다.

71) 가라타니 고진, 앞의 책, 171면.

미성숙한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다. 한국전쟁 이후 남한 사회는 그 자체가 ‘국민을 다시 만들어내는 하나의 교육 장치’였다. 전쟁기와 전쟁 직후의 아동 잡지는 그러한 학교 교육의 보조물로서 어린이상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새벗』의 편집자를 비롯한 아동문학 작가들은 ‘순수하고 씩씩하고 울긋은 어린이’를 지향했다. 전쟁의 슬픔에서 곧장 군사적 보복으로 뛰어넘어야 하는 정치적 상황에서 작가들은 ‘자신에게 자신이 알지 못하는 불확실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⁷²⁾하기보다 어린이라는 타자를 계몽하는 어른의 목소리를 앞세운 문학을 낳았다. 이 때문에 잡지의 독자들은 평등해야 할 국제적 연대, 상실과 허약함의 경험에서 출현하는 전혀 다른 연대의 가능성을 상상해보지 못한 채 새 국가 건설이라는 확실성의 자장 안에서 세계를 바라보게 되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철저히 의심하고 비판하고 질문하기를 감행하는 것만이 재현의 영역에 안주하지 않고 폭력의 순환 고리를 끊어내는 태도임을 배우지 못한 채, 전후의 많은 어린이는 어른이 되었다.

72) 주디스 버틀러, 앞의 책, 209면.

| 참고문헌 |

1. 기본 자료

『경향신문』, 『동아일보』, 『새벗』, 『소년세계』, 『어린이』, 『조선일보』, 『한성일보』
전택부·강소천 역, 『(민주주의독본) 새마을 국민학교』, 새벗사, 1954.
Ramee, Louis de la, 최남선 역, 『불상한 동무』, 신문관, 1923 [1912].

2. 단행본

가라타니 고진, 박유하 역, 『일본 근대문학의 기원』, 민음사, 1997.
김동춘, 『전쟁과 사회』, 돌베개, 2000.
마리아 니콜라예바, 조희숙 외 역, 『아동문학의 미학적 접근』, 교문사, 2009.
마샤 누스바움, 조형준 역, 『감정의 격동 2: 연민』, 새물결, 2015.
미셸 푸코, 심성보·전혜리·조성은 역, 『안전, 영토, 인구: 콜레주드프랑스 강의
1977-78년』, 난장, 2011.
박선주·오경환·홍양희 편, 『고아, 족보 없는 자: 근대, 국민국가, 개인』, 책과함께,
2015.
에티엔 발리바르, 진태원 역, 『우리, 유럽의 시민들?: 세계화와 민주주의의 재발명』,
후마니타스, 2010.
원종찬, 『한국 아동문학의 쟁점』, 창비, 2010.
이강숙·김춘미, 『우리 양악 100년』, 현암사, 2001.
이재철, 『한국현대아동문학사』, 일지사, 1978.
조셉 조베이도, 구은혜 역, 『만들어진 아동: 문화 이데올로기 아동 이야기』, 마고북스,
2011.
주디스 버틀러, 양효실 역, 『불확실한 삶: 애도와 폭력의 권력들』, 경성대학교 출판부,
2012.
중앙일보사 편, 『민족의 증언』7, 중앙일보사, 1983.
최덕교, 『한국잡지백년』3, 현암사, 2004.

3. 논문

고지혜, 「1950-1970년대 『소년소녀세계문학전집』의 ‘소녀’와 정전화 과정」, 『한국어문
교육』 34, 고려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2021, 235-273면.
고지혜, 「1960-70년대 세계아동문학전집의 고아 인물 연구」, 『아동청소년문학연구』
15, 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14, 251-282면.

- 김영중, 「피란수도 부산의 고아원과 고아의 삶: 한국 사회복지의 제도적 시원에 관한 연구」, 『향도부산』 41, 2021, 75-116면.
- 박영기, 「1950년대 한국전쟁 시기 아동잡지의 문학 교육적 양상과 의의: 『아동구락부』, 『소년세계』, 『어린이 다이제스트』를 중심으로」, 『청람어문교육』55, 청람어문교육학회, 2015, 351-386면.
- 서승희, 「전후 한국의 부랑아 구호 담론과 문화적 표상의 변천」, 『한국근대문학연구』 40, 한국근대문학학회, 2019, 37-73면.
- 소현숙, 「전쟁고아들이 겪은 전후: 1950년대 전쟁고아 실태와 사회적 대책」, 『한국근현대사연구』 84, 2018, 321-351면.
- 염희경, 「일제 강점기 번역·번안 동화 앤솔러지의 탄생과 번역의 상상력(2): 기독교 계열의 번역 동화 앤솔러지를 중심으로」, 『아동청소년문학연구』 11, 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12, 211-257면.
- 장수경, 「어린이 잡지 『새벗』의 성격과 의의」, 『아동청소년문학연구』 10,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12, 55-86면.
- 장수경, 「1950년대 구성되는 기억·아동·문학: 『새벗』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52, 현대문학이론학회, 2013, 329-354면.
- 장수경, 「1950년대 아동문학의 프레임에 비친 어린이 인권: 1950년대 『새벗』을 중심으로」, 『아동청소년문학연구』 30, 2022, 201-244면.

4. 인터넷 사이트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www.archives.go.kr

대한민국역사박물관 www.much.go.kr

<Abstract>

Emotional Education after the Korean War
– The Nation-state Ideology Reflected on Orphan Narratives of
Saebeot in the 1950s

Jo, Yunjeong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aspects of orphans appearing in literary works of the magazine *Saebeot*(new friend) in the 1950s, and to examine the health discourse distributed through the magazine advertisements and the problems of children's events held by the magazine publisher in relation to the reality of orphans' lives after the war. In the Western literature included in the magazine *Saebeot*, a large number of works are about orphans. In the process of translating them, these works were abridged and simplified under the influence of the discourse of didactic morality and the 'good wife and wise mother' ideology. Nonetheless, these works awaken the value of 'helpers(protectors)', reveal the danger of 'hierarchy' formed from an adult's point of view, and highlight the importance of 'compassion' for orphans. In contrast, Korean children's literature shows differences in terms of the appearance of rescuer as soldiers and teachers, formation of quasi families, and the solidarity of children. Korean writers of the postwar period denied the inherent weaknesses of humans and they made children regard themselves as living an inadequate existence or, conversely, made them stay in a fantasy of domination.

The features of literary works in the magazine *Saebeot* are related to the loss of foundation of life due to Korean war and the influence of

nationalism and anti-communism. The orphan narratives included in the magazine interrogate about the qualification to be saved and leave the benevolence and satisfaction highlight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savior. The rank of the saviors and saved people is also related to the advertisements of the magazine *Saebeot* and the events hosted by the magazine publisher. The discourse of healthy children emphasized in the magazine led readers to regard the bodies of relatively unprotected orphans as abnormal and deformed condition. What's more, invitations to cultural events or the private information of contest winners made readers despair due to social hierarchy and normal family ideology. Despite the critical efforts of some writers about this, the narratives of hope provided to children by *Saebeot* in the 1950s had no choice but to remain as political texts that contained power relations between adults and children, and between wealthy children and poor children, depending on the nation-state discourse after the war while still sealing the wounds of the war.

Key words: *Saebeot*, Korean war, orphan, children's literature, translation, compassion, nationalism, anti-communism

투 고 일: 2023년 2월 15일

심 사 일: 2023년 3월 8일

게재확정일: 2023년 3월 8일

수정마감일: 2023년 3월 22일